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학교밖 청소년의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2017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교육컨설팅협동과정

남 갑 길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학교밖 청소년의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지도교수 강 승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8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교육컨설팅협동과정

남 갑 길

남갑길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8월 25일

위 원 장 철 학 박 사 주 동 범 (인)

위 원 교육학박사 허 군 (인)

위 원 교육학박사 강 승 희 (인)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5
3.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7
1. 학교밖 청소년의 개념	7
2. 학교밖 청소년의 현황 및 지원	8
가. 학교밖 청소년의 현황	8
나. 학교밖 청소년의 지원체계	9
3. 학교밖 청소년의 원인	12
가. 개인요인	13
나. 가정요인	13
다. 학교요인	14
라. 또래요인	15
마. 사회요인	16
4. 학교밖 청소년의 유형	17
가. 학업중단을 하기 전의 청소년 유형	17
나. 학업중단 이후의 청소년 유형	19
5. 학교밖 청소년의 삶의 경험	22
III. 연구방법	25

1. 현상학적 연구.....	25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8
가. 연구참여자 선정.....	28
나. 자료수집 방법.....	31
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33
라. 연구의 평가기준.....	33
마. 자료 분석.....	35
바. 연구자로서의 준비와 선이해.....	36
IV. 연구결과.....	38
1. 학업중단 전 삶.....	39
가. 부모에 대한 불신.....	39
나. 학교생활에의 자괴감.....	42
다. 외로움과 소외감.....	45
2. 학교밖 삶의 경험.....	47
가. 생활변화로 인한 무기력.....	47
나. 현실장벽에의 직면과 어려움.....	51
다. 삶의 전환점.....	56
3. 삶과 목표.....	61
가. 삶의 의미와 목표.....	62
나. 미래를 위한 바램.....	65
V. 논의 및 결론.....	69
1. 논의.....	69
2. 결론 및 제언.....	73

참고문헌.....	77
부 록.....	85



표 목차

<표-1> 학업중단 전 유형.....	19
<표-2> 학업중단 이후 유형.....	21
<표-3>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9
<표-4> Lincoln과 Guba(1985)의 4가지 평가기준.....	35
<표-5> 학교밖 청소년의 삶의 경험.....	38

그림 목차

<그림-1>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4단계.....	28
-----------------------------------	----

Phenomenological Study on life of adolescents out of school

Nam, Kab Kil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Educational Consulting,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in what makes them quit studying in school, how they live their lives after that, and what are their goals in their lives to understand adolescents out of school from their viewpoint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eaning and essence of subjective experience of the adolescents out of school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ix participants, and deduce 3 themes, 8 categories and 22 formulated meanings by utilizing the method of Giorgi's (1985) phenomenolog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dolescents out of school felt lonely and alienated, due to distrust of their parents from their parenting style or divorce, bullying from their school peers and indifferences from their peers and teachers before school dropout. This is the reason why they quit school, failing to adapt in school life, caused by lack of interest and lack of caring for them.

Second, the study shows that school dropouts have difficulties in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due to absence of their position in any communities and negative gaze.

However, it has shown that they have the feeling their life can change through the meeting with peers having similar experiences in life, care and support from center teachers and club activities etc.

Third, this study has shown that school dropouts recognized the meaning of their life and set the goals of their own life, and hoped to be improved of a negative view of them and to be provided support service as soon as possi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dolescents out of school by tracing the backgrounds before and after dropout and exploring their experience of out of school and goal of their own life. In addition, it is needed to boost the organization to help adolescents out of school stand on their own and to support their career and counselling in polic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신체변화와 생리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 생물학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라기보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기가치를 확인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김남선 외, 2001). 이 시기는 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계획과 미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실적인 평가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이다(유지선, 2007).

이러한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일과를 보내는 곳은 학교로서, 학교는 지적 기능 및 기술 습득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인격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이명숙, 이규민, 2009). 그러나 입시위주의 교육과 학벌주의를 강조하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은 우울과 불안 등의 심리현상과 무기력한 수업태도, 수업이탈, 등교거부 등의 행위를 보이기도 하고(최춘례, 2013), 보다 나은 조건을 위해 학교를 떠나기도 한다.

2015년 교육부에서 학업중단 현황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전체 초·중·고등학생 재학생 중 0.7%인 47,070여 명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전체 중·고등학생 중 약 1%에 해당된다(교육부, 2016a). 또한 매년 누적된 학교밖 청소년 현황을 유추해본다면 학교밖 청소년이 36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학교밖 청소년만 28만 명에(백혜정, 송미경, 신정민, 2015)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밖 청소년을 찾아내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였고,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또한,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학습, 진로, 취업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시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a; 이은자, 2015). 그러나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관계부처의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지원을 받아야 하는 학교밖 청소년이 잘 알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바라는 지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의 요인이라기보다 복합적인 요인이 관련 되어 있다(Franklin, 1992). 과거에는 문제학생의 부적응이나 가정형편의 어려움으로 학교를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박창남, 도종수, 2003), 최근에는 학업관련, 학교규칙, 대인관계, 기타 부적응으로 인한 학교부적응이 전체학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교육부, 2016a). 그러나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위한 선택(금명자 외, 2004; 김동민 외, 2003; 윤여각, 박창남, 전병유, 진미석, 2002)이나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학교를 그만두거나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지 않은 청소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은 곧 학생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학교에서 쫓겨난 문제아”로 낙인이 찍혀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고, 학교라는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사회적 안전망에서도 벗어나게 된다(백혜정 외, 2015). 따라서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함을 의미한다. 이는 학교밖 청

소년이 학교밖 생활에 대한 기대와 달리 다른 경험을 하게 되면서 느끼는 좌절감(김영희, 2014)으로 인해 방황과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고(구본용, 신현숙, 유제민, 2002), 체계적인 지지나 지원을 받지 못해 1년 이내 비행과 같은 부적응 행동이 재발할 비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금명자, 2008). 또한, 발달과정에 필요한 기술 습득 및 기회의 상실로(박현선, 2003)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신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교밖 청소년 중에는 자발적으로 학교를 벗어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김영희, 최보영, 이인희, 2013), 학업중단을 후회하기보다는 만족하고 있으며(윤철경 외, 2013), 학업중단 이후 비행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중퇴 청소년도 발견되었다는 점은 학교밖 청소년이 비행청소년과 동일시되지 않음을(박현선, 2003) 시사한다. 이는 우리나라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둔 것이지 자신의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안현의, 이소영, 권해수, 2002). 학교밖 청소년은 문제 학생부터 자발적 자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욕구를 가진 청소년들이고, 학교를 그만둔 요인에 따라 삶의 유형 또한 다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금명자 외, 2004; 김영희 외, 2013). 즉, 학교밖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다양한 이유와 그에 따른 그들의 욕구를 반영한 삶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교밖 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는 학업중단 원인(유진이, 2009; 조아미, 2002; 조용태, 배영태, 2003), 학업중단 이후 실태나 예방 대책(금명자 외, 2004; 이병환, 2002),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이나 특성(김범구, 2013; 박창남, 도종수, 2003; 이경상, 조혜영, 2005; 이숙영, 남상인, 이재규, 1997),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 실태(이경상, 박창남, 2006; 전경숙, 2006)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개인 및 사회적 특성을 기술하거나 심

리적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양적인 연구들로(김범구, 2012), 문제 중심 관점에서 학업복귀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학교를 그만두는 것은 비행이나 부적응으로 인한 소극적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나 학업 성취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안현의 외, 2002) 점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질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심리사회적 적응과정(김영희, 2014), 진로 탐색 경험(김근영, 2012; 김지수, 2013), 학교중단부터 학업복귀과정(조규필 외, 2011; 홍나미, 신문화, 박은혜, 박지현, 2013), 사회적 지원 및 해결방안(전경숙, 2006) 등의 연구가 보고되었다. 이처럼 학교를 떠나 다양한 적응과정과 경험에 관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학업중단과 관련하여 한정된 시점 중심이거나, 혹은 어려움과 부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학교밖 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과정과 내적 경험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2011).

따라서 학교밖 청소년의 전반적인 경험에 대한 현상과 의미, 기대 등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밖 청소년을 바라보는 기본적 틀을 배제한 새로운 관점에서 학업중단 전 배경과 학업중단 후 경험하는 삶, 청소년들이 선택한 삶과 목표는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기반하고 있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학교밖 청소년의 성장배경부터 학업중단 이후 전반적인 삶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 삶에서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본질과

의미를 도출하는데 매우 적절한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주관적 경험의 의미를 확인하여, 향후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학교밖 청소년의 주관적 경험의 본질과 의미는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전 배경은 어떠한가?

둘째, 학교밖 청소년이 학교밖에서 경험하는 삶은 어떠한가?

셋째, 학교밖 청소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3. 용어의 정의

가. 학교밖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이란 학령기에 속하는 청소년이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자의나 타의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김성기, 2013).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학교밖 청소년과 유사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학교밖 청소년은 학업이 아닌 학교를 그만둔 것이

라는 긍정적인 관점에 따라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금명자, 2008).

본 연구에서도 의무교육기관인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학령기에 속하는 모든 청소년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나.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개인이 어떠한 체험을 했는지 인간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그 체험을 기술하고, 체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다(김영천, 2013b). 현상학자는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현상의 경험을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두며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들을 보편적 본질에 대한 기술로 축소하는 것이다(Creswell, 2007).

본 연구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의 주관적인 경험을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탐구하여 그들의 공통적인 경험에 대한 구조를 밝히고 기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밖 청소년의 개념

‘학교밖 청소년’이란 다양한 사유로 정규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일컫는다. 학교밖 청소년은 일반적으로는 학업중단자를 지칭하고 있지만, 실제로 입학 여부를 기준으로 의무교육기관에 진학하지 않은 ‘미취학자’, 입학 이후 학업을 중단한 ‘재학 중 학업중단자’,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미진학자’로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김성기, 2013).

이전에는 학교밖 청소년과 유사한 용어로 중도탈락자, 중퇴생, 탈학교 청소년, 자퇴생, 비(非)학생 청소년, 부등교 청소년 등을 사용하였다(유성경, 이소래, 1998; 이숙영 외, 1997; 조용태, 배영태, 2003). 1990년대에는 ‘중도탈락’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중도탈락이라는 용어는 학교밖 청소년의 정서를 배려하지 못한 사회적 책임도 간과한 용어라고 논의되면서, 이를 위한 대안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윤여각 외, 2002). 이는 학업중단 사실 자체를 가치중립적으로 표현한 용어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교육부, 정부의 대책 등에 의해 청소년이 학업을 잠시 중단한다는 의미를 담아 학업중단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금명자, 2008; 윤여각 외, 2002).

학업중단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된 이유는 이전 연구에서 학업중단과 관련한 연구들이 대부분 분명한 정의 없이 연구가 이루어지거나 명칭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며, 있다하더라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한 연구 안에서 혼용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금명자, 2008). 그래서 학업중단 용어 사용에 대하여 여러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그 중 하나로 이들은 학업이 아닌

학교를 그만 둔 것이라는 의미로 학교중단이 적합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그 후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학교밖 청소년이라 불리게 되었다(조아미, 2014). 또한, 학교를 그만두고 학업을 이어나가지 않은 청소년 즉, 근로 청소년, 무직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등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학교밖 청소년을 지칭하였다(금명자, 2008).

최근 제정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3조 제1호)을 말한다. 학교밖 청소년은 초·중등교육법에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에서 3개월 이상 결석(제2조)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경우(14조 제1항), 고등학교 또는 동일한 과정(제2조)에서 제적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자퇴한 경우(제18조),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제2조)이라 정의하였다. 이 법률은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국가법령지원센터, 2015).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정규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이나 중단한 상태, 진학하지 않은 9세 이상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학교를 그만두었으나 학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학교밖 청소년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학교밖 청소년의 현황 및 지원

가. 학교밖 청소년의 현황

교육부가 학업중단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5학년도 한 해 동안 학업을 중단한 초·중·고교생은 총 47,070명으로 재학생 수 6,088,827명 중

0.77%에 해당한다. 학교급별로 학업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4,555명으로 0.54%, 중학교 9,961명으로 0.63%, 고등학교 2,788,266명으로 1.26%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0학년도 61,910명(0.86%), 2011년 1.06%(74,365명)로 증가하였다가 2012년에 0.93%에서 2015년에는 0.77%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0년도와 비교 해 볼 때 6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6a).

그러나 매년 5-6만 명의 학교밖 청소년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만큼 누적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학교밖 청소년들의 규모를 추정한 윤철경 외(2013)는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연구에서 출생인구 중 학령인구와 실제 학생 수, 외부 유입인구 수 그리고 기타학제 학생 수를 제외한 수치를 기준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2012년 기준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령인구는 약 713만 명인데 실제 재학 중인 학생 수는 약 672만 명이며, 외부 유입인구와 기타 학제 수 등을 제하면 약 36만 명이 학교밖 청소년으로 분류되며, 이중에서도 소속이 파악되지 않은 청소년은 28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미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미국은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 수가 해마다 120만 명으로 이와 비하면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수로 환산했을 때 36만 명 이상이라는 수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백혜정 외, 2015), 이는 그들이 삶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윤철경 외, 2013)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나. 학교밖 청소년의 지원체계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부처로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이 있다.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부

교육부에서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정책과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으로 학력취득 기회 제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위탁형 대안학교가 있다. 대안학교는 공교육 제도권이 가진 모순들을 해결하고,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대안학교에서 출석과 과정을 마치면 소속 학교의 학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2016년 1월 기준 대안학교 25개교, 특성화중학교 13개교, 특성화고등학교 25개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일부 받고 있다(교육부, 2016b).

학업중단 예방 정책으로는 학업중단의 위기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는 청소년에게 최소 2주 이상 학업중단에 대해 숙려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인 학업중단숙려제가 있다. 이는 2014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숙려기간 동안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Wee센터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심리 및 진로상담을 받게 된다. 상담 종료 후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학교밖 진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상담센터를 연결해주고, 학업복귀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학업복귀와 함께 지속적인 상담을 받게 된다. 또한,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꿈키움 멘토링 프로그램」에서는 대학생, 직장인 등이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의 멘토가 되어 위기 극복을 도와주고 있다(교육부, 2014; 백혜정 외, 2015).

(2)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교밖 청소년들을 찾아내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4년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5.05.29. 시행)’이 제정되어, 기존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사업인 ‘두드림’과 ‘해밀’이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확대 변경되어 운영하고 있다. 이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에서는 학교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지원, 직업체험, 취업지원과 자립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전국 20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꿈드림 홈페이지). 또한, 학교밖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검진서비스도 실시하여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기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work)에서는 지역사회 내의 관련 기관 및 연계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학업중단이나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보호, 교육과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가출 청소년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시설로 청소년 쉼터가 있는데, 이 시설에서는 일정기간 보호와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백혜정 외, 2015; 여성가족부, 2015b).

(3) 기타기관

고용노동부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의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학교밖 청소년 자립을 위한 취업사관학교와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취업사관학교에서는 학업중단, 가출 등으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계가공 조립, 용접, 바리스타, 피부미용 등 훈련과정과 훈련비, 자립수당 지급 등 지원을 돕고 있다.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과 위기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취업을 돕기 위한 지원체계이다(고용노동부, 2015).

법무부에서는 재학생이나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소년범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지속이나 취업, 직업훈련,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생활관과 사회정착지원센터를 두고 있다(김경애, 2014; 법무부, 2015). 보건복지부에서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하여 취약 청소년 및 만15-18세의 미취학 청소년 대상으로 자립, 취업, 직업훈련 등 진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노력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학교밖 청소년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에만 초점을 두거나 기관 간의 연계 및 정보공유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백혜정 외, 2015). 따라서 지원이 필요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그들을 통한 각 기관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지속기간, 만족도, 미래 전망 등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3. 학교밖 청소년의 원인

학교밖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청소년을 둘러싼 개인, 가족, 또래, 학교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배영태, 2003; 조아미, 2002), 하나의 원인이라기보다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다(Franklin, 1992; Levine, 1986). 학업중단 원인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달리 설명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또래요인, 사회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개인요인

학업중단과 관련된 개인요인으로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기유능감, 자아통제, 자기조절기능, 성취동기, 학업흥미나 학업성적 저하, 높은 공격성, 노동참여, 비행, 낮은 대인관계 기술 등을 들 수 있다(강석영, 양은주, 이자영, 2009; 구본용 외, 2002; 유성경, 2000; 조영승, 구본승, 신현숙, 유순덕, 2001). 이들 요인 중 자아존중감이 중요한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유지하며, 자신의 단점을 수용하고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도 자아존중감에 쉽게 위협을 받지 않으며, 분노 폭발이나 공격적 행동을 통한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려는 시도도 적다(김가희, 2013; Conner & Barret, 2005; Kernis, & Barclay, 1989).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학업이나 새로운 도전에 열정과 의욕을 보이는데,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성취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이 떨어져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회피 또는 부인하게 된다(안영신, 2001). 학업성적이 떨어지면 무력감과 고립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소외감이나 갈등을 겪기도 한다(조영승 외, 2001; Zeeman, 1982). 이러한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지각으로 우울로 이어지면서 학교생활에 대한 동기나 흥미 상실로 학교 등교의 의미를 잃게 된다(유진이, 2009). 또한, 흡연이나 금지 약물 복용, 부적절한 성행동, 장기간의 가출경험도 학교를 그만두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본용 외, 2002; 금명자, 2008; 김혜영, 2002; 이숙영 외, 1997; 전경숙, 2006).

나. 가정요인

가정은 청소년에게 일차적 환경이자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결정적인 요인으로(강석영 외, 2009) 청소년에게 제일 중요한 환경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학업중단과 관련된 가정요인은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낮은 소득, 가족의 결손과 같은 가정의 구조적 측면과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부모의 교육적 기대수준, 부모의 양육환경 등 가정의 기능적 측면으로 나누어 구분하기도 한다(박창남, 도종수, 2003; 이숙영 외, 1997; 조영승 외, 2001). 구조적 측면인 부모의 이혼, 별거, 재혼, 사망 등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 변화가 있거나, 가족이나 형제 중 중퇴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배영태, 2003; 서우석 외 2007)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의 구조적 결손보다 가족원 내 의사소통, 가족 분위기나 가족갈등과 같은 가족의 기능적 측면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권지은, 1998). 부모의 자녀 교육 기대수준이 낮거나, 가족 간의 대화 부족, 비일관적인 양육태도 등(조아미, 2002), 가족으로부터의 지지 결핍이나 박탈은 자기거부적인 태도(김근영, 2012; Kaplan, 1984)를 보이거나 정서적·지적발달의 저해와 학습 및 사회적응의 부진으로 자신의 가치를 낮추게 되며, 비행 및 범죄에 이르게 되어(윤철경 외, 2013; 이숙영 외, 1997) 학업중단의 원인이 된다.

다. 학교요인

학교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회화 기관이지만 우리나라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상위권 성적만을 강요하는 학벌주의, 성적에 따른 평가 등으로 학생의 능력과 적성이 무시되는 학교환경은(박창남, 도종수, 2003) 청소년들에게 극심한 학업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학업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

록 학교에 대한 애착심도 낮아지고 학교생활에 무관심하게 되며, 잦은 결석으로 이어져 유대감이 약화하게 된다(김민, 2001; 전경숙, 2006). 이러한 학교환경에 적응하는데 교사의 역할이 가장 크다. 학교에서의 교사는 부모의 역할을 보완해주며 청소년의 학업성취, 지적성숙과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윤채봉, 2000) 지지자원으로 교사가 강하게 버팀목이 되어주면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의도를 낮추는(강석영 외, 2009) 역할을 한다. 그러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아닌 학생의 차별대우로 인해 교사와 갈등을 겪기도 한다. 교사와의 신뢰관계가 악화되면, 학교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생겨 학교부적응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강석영 외, 2009; 배영태, 2003; 서우석 외, 2001; 윤철경 외, 2013).

또한, 교칙위반이나 교칙의 엄격성에 의한 경직된 관리운영으로 학교에 적응 못하거나(안현의 외, 2002; 유성경, 이소래, 1998; 조아미, 2002), 청소년들의 개성과 흥미를 무시하고 집단성을 강조하는 획일적인 교육과정과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분위기는(박창남, 도종수, 2003) 학교보다 학교밖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느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안현의 외, 2002)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 또래요인

청소년기 또래관계는 비슷한 연령, 성별로 학교에서 비슷한 특성이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발달 및 사회적으로도 동일시되어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이다(장경희, 2010; Perry & Bussey, 1984). 또래와의 관계는 타인과 친숙한 관계를 형성하여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관계이며, 자기

인식과 자기개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원천이 되는 관계이다(홍소정, 2005; Hartup, 1993). 하지만 재학 중에 또래로부터 폭행이나 따돌림을 당하였거나(서우석 외, 2007; 이숙영 외, 1997), 비행이나 학업을 중단한 또래와 어울리는 일이 많은 청소년일 경우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배영태, 2003; 신현숙, 구본용, 2002).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형성과 유지하는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상호간의 관계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 내에서도 올바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기뿐 아니라 성인기 되어서도 부적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교육란, 2012).

마. 사회요인

학업중단과 관련된 사회요인 중 하나로 학생들을 학교밖으로 끌어내는 노동시장 요인을 들 수 있는데, 특히, 저임금, 저숙련, 노동력 등에 대한 수요가 크고, 실업률이 매우 낮을 때 학업중단 현상이 두드러진다(박창남, 도종수, 2003).

유해환경과 관련한 유흥 및 향락업소, 컴퓨터 게임방, 주유소 아르바이트 등 지역사회의 특성은 학교생활은 구속이며 재미없다는 인식에 의욕을 잃은 청소년들에게 향락 문화와의 접촉은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끼게 되면서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구본용 외, 2002; 배영태, 2003; 성윤숙, 2005; 전경숙, 2006).

한편, 대중문화를 지향하는 청소년 중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영화, 그림, 만화 등의 활동을 위해 자신에게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학교공부를 중단하고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나기도 한다(이혜영, 2001).

또 다른 요인은 정보화로 학교밖에서 다양한 정보통신망과 각종 평생교

육 참여를 통해 학습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교사와 학교에 의해 학습을 취득해야한다는 의미가 낮아지면서 제도권의 통제 안에서 해방되려는 경향이 있다(남미애, 2006).

4. 학교밖 청소년의 유형

학교밖 청소년에 관련한 유형을 살펴보고자 학교를 그만두기 이전과 이후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학교를 그만두게 된 동기, 학교를 거부하는 정도, 학교를 그만 둘 당시 자신을 정체화하는 방식, 학교를 그만두게 된 원인, 자발성 유무에 따라 학업중단 이전 생활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난 후 생활유형, 학업중단 이후 현재하고 있는 일, 향후 계획에 따라 구분하여 학업중단 이후 생활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가. 학업중단을 하기 전의 청소년 유형

전통적 학업중단을 입시위주와 파행적인 학교교육의 관점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을 학교 부적응 차원으로, 학교 및 사회적 차원에서는 청소년 문제와 같은 교육병리현상으로 이해되었다(김민, 2001). 초기연구에는 학업을 중단하는 것은 학교밖 청소년이 자의나 타의에 의해서 학교를 그만두거나, 이후로는 자발성 정도에 따라 학교를 그만 두는 것으로 구분하였고,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자신을 어떻게 정체화하는지를 표현(김혜영, 2002; 성윤숙, 2005; 송광성, 구정화, 이명아, 김소희, 1992)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학업중단을 결심하는 동기에 따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도피하기 위해 또는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것으로 능동형, 도피형, 불가피형으로 구분하였다(송광성 외, 1992). 이후 학교를 그만두는 유형을 더욱 세분화한 박창남과 도종수(2003)의 연구에서는 적극형, 소극형, 강제형, 가출동반형, 수월추구형으로 나누었다. 학교교육 자체를 거부하는 적극형, 학습부진 등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인 소극형, 비행으로 학교에서 밀려난 강제형, 가출로 인한 가출동반형, 수월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수월추구형으로 학업을 중단한다고 하였다. 학업중단 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교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통적 학업중단 관점에서 1990년대 이후에는 적극적,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김민, 2001). 학교 재학 중 청소년이 학교교육이 부질없다고 판단하여 학교가기를 적극 거부하거나,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학교에 가기 싫어 집에 있는 유형으로 적극적 거부형과 부등교형으로 구분한 경우도 있다(조한혜정, 1997). 그리고 학교를 그만두고 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신을 찢린 아이, 때려친 아이로(김혜영, 2002; 성윤숙, 2005)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는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측면에서만 학업중단 유형을 분석하고 있었지만, 학업중단이라는 고위험 상황에서도 적응양상을 보이는 청소년 특성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학교제도에 실망해 새로운 배움터를 찾아 나서기도 하고, 외부 지원 없이 기회와 정보, 과정을 스스로 찾아가는 새로운 대안추구형과 고독한 개척자형, 다양한 시도를 하나 시행착오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시행착오형, 지위비행을 일삼으며 교사의 불신과 특정한 계기로 충동적 중퇴를 결심하는 탈출형, 학교나 가정, 스스로 포기하는 자포자기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새로운 대안추구형과 고독한 개척자형은 다른 3유형에 비해 학업성적, 책임감, 낙관성 등이 높았으며 가정

적응유연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선, 2004). 이를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 학업중단 전 유형

연구자	유형
송광성, 구정화, 이명아, 김소희(1992)	능동형, 도피형, 불가피형
조한혜정(1997)	적극적 거부형, 부등교형
김혜영(2002), 성윤숙(2005)	때려친 청소년, 짚린 청소년
박창남, 도종수(2003)	적극형, 소극형, 강제형, 가출동반형, 수월추구형
박현선(2004)	새로운 대안추구형, 고독한 개척자형, 시행착오형, 탈출형, 자포자기형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학교를 그만 두는 이유로 청소년의 개인특성과 관련하여 일탈이나 문제행동에서 보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자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변화되었음을 제공(김혜영, 2002)해 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업중단 동기에 따라 비자발적이기보다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학교밖 청소년의 적응적인 태도와 특성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학업중단 후 삶의 방향에 관한 이해가 필요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나. 학업중단 이후의 청소년 유형

학교를 그만두게 된 동기와 목적에 따라 학업중단 이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이주연, 정제영, 2015). 학교를 그만 둔 초기에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교의 구속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을 느끼게 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쉬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을 느끼며 이에 대한 변화의 시도 여부에 따라 불규칙한 생활을 지속하여 문제행동이 악화되거나,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여 현재 상황을 새롭게 자리매김하기도 하였다(김영희, 2014; 오혜영 외, 2011).

학교밖 청소년은 대안학교를 선택하여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는 청소년, 근로를 선택하여 성인과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진로결정을 못하여 교육이나 훈련, 근로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불규칙한 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기도 하였다(백혜정 외, 2015).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심리 과정과 삶의 경로가 다양화 되고 있다는 것은 유형도 다양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 연구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을 현재 하는 일을 기준으로 적응적이거나 부적응적으로 크게 나누었다. 이를 다시 세부유형으로 구분해서 적응형을 진학형, 직장 취업형, 취업준비형으로 나누고, 부적응형을 소년원 수용청소년,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요양 중인 청소년으로 보호 및 관리기관에 소속된 청소년과 방치된 비행청소년, 유흥업소 종사 청소년, 가출청소년으로 보호 및 관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으로 구분하였다.

적응형은 학업중단 후 가족이나 학교에서 내면화 되어진 가치관을 회복하여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유형은 학업중단 후 장, 단기로 방황하기도 하고, 적응을 위한 노력 중 다양한 삶의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부적응형은 학업을 중단하는 적지않은 청소년들이 진로 및 진학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방황을 하며 이들 중 소년원, 보호관찰소, 병원 등에 수용, 관리 되는 청소년도 있으며, 책임 있는 공식기관에

보호나 관리되지 않은 청소년도 있었다(이숙영 외, 1997)

이와 같이 이전에는 적응과 부적응으로 구분하여 이분법적인 측면에서 부적응적인 청소년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어려움을 경험하고 극복하면서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개척하려는 다양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남미애, 2006). 이에 향후 계획에 따른 진로설정 및 준비 실태를 유형화한 이경상과 조혜영(2005)은 순수진학형, 아르바이트형, 취업형, 진로미결정형, 기타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김범구(2013)는 잠재계층을 유형화 분석하여 미결정중심형, 미래준비형, 진학준비형의 3가지 유형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현재하고 있는 일을 기준으로 윤철경(2010)은 학습형, 취업·알바형,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형으로 구분하였고, NEET형은 다시 은둔형, 배회형, 소일형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 학업중단 이후 유형

연구자	유형	
이숙영, 남상인, 이재규 (1997)	적응형	진학형, 건전직장 취업형, 취업준비형
	부적응형	보호 및 관리 기관에 소속된 청소년
		방치된 비행청소년, 유흥업소 종사 청소년, 가출청소년
이경상, 조혜영(2005)	순수진학형, 아르바이트형, 취업형, 진로미결정형, 기타형	
윤철경(2010)	학습형, 취업·알바형, NEET(은둔형, 배회형, 소일형)	
김범구, 조아미(2013)	미결정중심형, 미래준비형, 진학준비형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가 자기실현욕구부터 상처, 비행 등에 이르기까지 복잡적이고 순차적이며(박현선, 2003), 학교를 그만 둔 이후의 삶의 경험도 적응과 부적응의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학교밖 청소년의 삶이 보다 세분화 되고 포괄적으로(이주연, 정제영, 2015) 나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학교밖 청소년들의 표면상 드러나는 삶의 경로는 확인해 주지만, 현상 이면의 그들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학교밖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고유성, 다양성, 능동성 등을 고려한 주관적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김영희, 2014) 위한 탐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5. 학교밖 청소년의 삶의 경험

학교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 둔 이후 경로는 학업중단 원인, 동기 등 과정, 학교를 그만둔 이후 경험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윤철경 외, 2013). 학교를 그만두는 현상에 대하여 초기에는 학교부적응의 원인과 예방, 학교 재적응 지원방안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후에는 학업중단 경험이 청소년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어떤 요인이 학업중단 행위에 작용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김민, 2001). 하지만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통계를 활용한 양적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을 뿐(김범구, 2012) 학교밖 청소년의 내적 경험의 이해를 요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야 연구 참여자와 대면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밖 청소년의 삶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바라보는 질적 연구를 살펴보

면 학업중단 후 진로 탐색 및 진로준비를 위한 연구(김근영, 2012; 김지혜, 2008), 학업중단 이후 학교밖 청소년의 노동경험에 대한 맥락과 적응과정을 다룬 연구(김지영, 2011), 학업중단 후 심리사회적 적응과정 연구(김영희, 2014), 쉼터에 생활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전후의 생애사 경험에 대한 연구(조희경, 2013), 학교밖 청소년의 삶 찾기 과정을 근거 이론적으로 다룬 연구들이 있다(이미원, 유현설, 2013). 그리고 학업중단 후 대안학교를 선택한 학교밖 청소년의 적응과정(최연수, 2015)이나 학업중단 후 학업복귀 과정 연구를 상담자 입장에서 실제적 이론을 도출하여 개입방향을(오혜영 외, 2011; 홍나미 외, 2013)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부모와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주변의 무시와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윤철경, 2010).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은 진로를 탐색하거나 학업복귀를 원할 경우 재학 청소년보다 정서적·인지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한 노동시장에 참여할 경우에도 미성년자이면서 저학력자로서 존재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거나 사회적 낙인으로 부당대우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영, 2011). 이렇듯 학교밖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Franklin(1992)은 ‘이중의 어려움’이라 표현하였다. 학교밖 청소년은 실제 현실에서 겪는 적응상 어려움과, 개인적, 환경적 취약성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내적인 어려움을 겪는(김영희, 2014) 것이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개입 요인으로 가족의 격려, 상담자지지, 주변의 정서적 지지(금명자 외, 2004; 안현의 외, 2002; 오혜영 외, 2011) 등 긍정적인 요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학교밖 청소년의 삶의 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업중단 이전에는 학교, 가정, 개인적 특성요인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학업중단 이후에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과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통해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이들을 돕기 위한 상담, 진로, 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Elder와 Shanhan(2006)은 과거에 부정적인 삶의 경험이 있음에도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전환점을 가지게 되며, 그 기회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학교밖 청소년들도 선행연구에선 부정적인 삶의 경험을 하였으나, 미래를 향한 의지, 사회적 지지 등을 통해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삶에 적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학교밖 청소년들의 전체적인 삶의 경험을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를 그만 둔 배경은 무엇인지, 학교를 그만둔 이후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그 경험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학교밖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경험을 탐색하여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질적 연구는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경험, 감정, 인지, 지각 등에 의미를 부여하고 상황을 정의하며 그들의 내부자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려는 것이다. 양적연구에서 의도하는 일반화와 이론의 검증, 법칙 규명과 달리, 특정한 삶의 생활세계를 경험하는 참여자가 가지는 시각을 기술하고 이해하는 것이다(김영천, 2013a).

이러한 질적 연구는 학교 안에 머무르지 않은 학교밖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집중하여 주관적 경험의 맥락과 의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로 진행하고자 한다.

1.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적 질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는 하나의 개념 또는 현상에 대하여 여러 개인들의 체험(lived experience)의 공통적 의미를 기술하는 것이다. 현상학자들은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현상을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을 기술하는데 초점을 두며,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들을 보편적 본질에 대한 기술로 축소하는 것이 현상학의 기본적인 목적이다(Creswell, 2007). 이러한 현상학은 살아있는 인간경험에 대하여 기술하는 것이며, 대상자의 실재에 접촉하는 총체적 접근을 요구하는 것이다(김분한 외, 1999).

훗설(Husserl)에 의해 제창된 현상학은 ‘사물 그 자체로 돌아가라’라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시작하였다. ‘사태 자체로’라는 구호가 말해 주듯 어떤 선입견에도 구속되지 말고 탐구하는 사태로 돌아가라는 이론을 수립하고 있다(이남인, 2015; Husserl, 1970).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를 하는 방법으로 현상학적 환원(Phenomenological reduction)이 있다. 현상학적 환원은 대상을 바라보는데 있어 연구자의 이론적 편견이나 선지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입견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에포케(epoche)와 괄호치기(bracketing)로 나누어진다. 에포케는 우리말로 판단 중지라고 일컬으며, 새로운 지식이나 경험을 끌어내기 위한 준비로 당연히 믿고 있는 선개념, 선지식 등에 대한 판단을 중지시키는 것이고, 괄호치기는 판단중지를 위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을 괄호 안에 집어넣는 것이다(김영찬, 2013b).

현상학적 체험 연구는 지향성을 가진다. 지향성은 ‘체험이 세계 및 세계에 있는 대상을 향하고 있다’는 개념이며, 현상학적 체험 속에서 드러나는 의미로 기술된다(이남인, 2015). 현상학적 접근은 인간의 경험 연구에서 중요하며, 현상학 연구자는 지각 및 판단의 복합성을 지닌 인간의 경험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경험하는 개인의 의미를 파악하는 기술(description)을 통해 대상자의 실재에서 그들을 알고 도울 수 있다(김분한 외,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배경과 이후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다.

현상학 연구방법은 여러 학자들(Van Kaam, Giorgi, Colaizzi, Van Manen, Moustakas)에 의해 개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Giorgi의 분석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Giorgi의 분석방법은 개인적 경험에 초점을 두고 주관적인 경험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김분한 외,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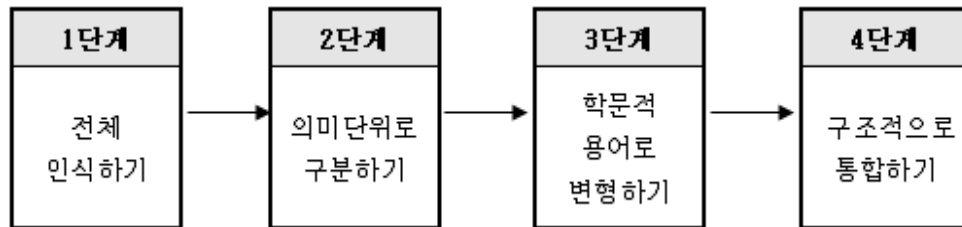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4단계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전체의 인식이다. 연구참여자가 진술한 상황이 무엇인지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단계이다. 연구자는 전체를 잘 파악하기 위해 녹음된 자료를 여러 차례 읽어볼 필요가 있다. 여러 번 읽는 작업은 전체를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단계 분석을 위한 토대가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연구자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의미단위(meaning units)로 구분한다. 전체의 인식이 파악되면 전체를 동시에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리 가능한 기준 단위로 나누어야 한다. 연구자는 학문적 관점에서 연구참여자의 언어 그대로 자신의 경험을 인식하는 단위로 의미단위를 구분하여 기술한다. 기술에 대한 심리적 실재는 세계 속에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닌 연구자의 현상학적 태도와 자세로 구성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로 나온 의미단위는 연구참여자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단계는 중첩되는 동일한 의미단위들을 학문적인 용어로 변형하면서 하나의 의미단위로 조합해 나간다. 의미단위들은 각각 다른 의미단위 혹은 전체적인 의미와 연관 지으면서 주제를 구체화하여 참여자의 경험이 대상자를 나타내는 중심의미(focal meaning)로 표현한다. 이때 일반적인 의미 범주를 파악하기 위해 반성과 자유변경 과정을 통하여 가장 학문적인 표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분석과정을 통해 변형된 중심의미를 구조적으로 통합하여 기술한다. 이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의 구조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구조는 여러 개의 의미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으로 개별적 구성요소들 사이 상관을 포함하고 있다(Giorgi, 1985). 이를 정리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4단계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가.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을 학교밖 청소년이라고 정의하며,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전 배경과 학교를 그만두고 난 후 현재까지의 삶의 경험이 어떠한지 심층면담을 통해 그 경험을 기술하고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P시에 소재해 있는 유관기관 및 지인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 추천을 요청하였다. 지인을 통해 추천받은 2명의 연구참여자는 1회의 면담 이후 면담을 그만하고 싶다고 하여 더 이상의 면담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각 유관기관이나 학교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다른 기관의 관계자에게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설문지 협조는 가능하나 외부노출을 원하지 않으며 신상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담당자의 답변으로 소개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 곳을 수소문하던 중 지원센터 한 곳에서 담당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학교밖 청소년 소개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학교밖 청소년을 만나기 위해 기관 방문 전 담당자와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였고, 학교밖 청소년이 모이는 일

정에 맞추어 기관을 방문하게 되었다. 학교밖 청소년과 첫 만남을 통해 심층면담에 대한 최종동의를 얻은 연구참여자는 6명이며,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표-3>과 같다.

<표-3>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연구참여자 (가명)		성 별	나 이	학업중단 시기	학업중단 이유	가족구성 (거주)
1	준범	남	19	고등학교 미진학	부모권유	부모, 남동생
2	지영	여	17	중학교 1학년 1학기	건강상, 친구 괴롭힘	모(이혼)
3	종혁	남	19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가정불화, 성적저조, 대안학교 진학	부모, 남동생
4	소희	여	16	초등학교 4학년 2학기말	친구 괴롭힘	부모, 오빠, 여동생
5	제민	남	18	고등학교 미진학	성적저조, 대안학교 진학	모(이혼), 누나
6	동훈	남	19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말	학업저조, 대안학교 진학, 친구 괴롭힘	부모, 남동생

준범이는 현재 19세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진학을 하지 않았고, 지금은 학교밖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부유하던 가정환경에서 부모님 사업이 어려워지자 서울에서 지방, 부산까지 이동을 하게 되었다. 이사 온 이웃집에 초등학교 때부터 홈스쿨링 경험이 있는 형의 영향으로 부모님이 고등학교 진학보다 학교밖을 권유하게 되었고 형을 알게되면서 학교밖 생활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이후 학교밖 생활은 불규칙하게 되면서 자퇴에 대한 회의가 들어 나태한 생활을 하기도 하였지만 사업을 함께 하기를 건의한 형의 도움으로 활력을 얻고 학교밖 청

소년을 돕기 위한 동아리 활동도 하게 되었다.

지영이는 현재 17세로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퇴를 하였다. 부모님 이혼 후 엄마와 살고 있었으며 엄마의 경제적인 활동으로 늘 혼자 집에 있었다. 몸이 약해 학교는 자주 결석 하게 되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많지 않았다. 잦은 결석은 친구들의 관심과 격정보다는 비난을 유발하였으며 억울한 감정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학교생활을 유지하다 어머니를 설득해 자퇴를 하게 되었다. 학업중단 후 대인관계에 두려움이 있었으나 주변사람의 관심과 지지를 통해 현재는 다양한 활동과 그림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다.

종혁이는 현재 19세로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면서 학업을 중단하였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음주가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졌으며 어머니와 동생은 이를 피해 집을 나갔고 혼자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했다. 참여자는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 무기력을 경험하기도 하였고, 어머니의 지나친 공부 간섭으로 학업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며 성적이 하락하게 되었다. 부모님의 잦은 불화로 친척들이 중재에 나섰으며, 자신에게는 대안학교를 권유하여 자퇴를 선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홍보했던 내용과 기대에 미치지 않는 대안학교에는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었다. 이후 동아리에서 비슷한 또래와의 만남과 활동을 통해 자극을 받고 의사가 되고 싶은 목표가 생기면서 대학을 가기위해 접었던 공부를 하게 되었다.

소희는 현재 16세로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학업을 중단하였다. 아버지의 실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졌고 그 시기에 동생이 태어나면서 자신은 부모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4학년이 되면서 친구들로부터 이유없는 따돌림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엄마의 권유로 바로 자퇴를 선택하였다. 학교밖 생활에 대한 정보부재, 외부활동의 막막함과 어려움을 경험하였지만 수련관을 알게 되면서 자신보다 많은 경험이 있

는 학교밖 언니, 오빠들을 보면서 현재 여행작가의 꿈을 키우며 검정고시 준비와 자기능력개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제민이는 현재 18세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았다. 참여자는 부모의 이혼과 누나도 있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는 혼자 거주하게 되었다. 제민이는 돌봄 부재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로 게임에만 몰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도 잦은 지각과 공부에도 소홀하게 되었다. 이런 생활에 어머니는 대안학교를 권유하게 되었고, 꿈을 찾고자 자퇴를 선택하였지만 대안학교의 교육보다 이후에 알게 된 동아리 활동과 친구들을 만나면서 검정고시와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다.

동훈이는 현재 19세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말경 학업을 중단하였다. 부모님의 맞벌이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할머니 집에서 자라다 이후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6학년이 되면서 또래들로부터 겉돌림을 당하였고, 영어성적 하락은 학교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부모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권유로 자퇴를 하게 되었다. 대안학교 생활도 원만하지 못하였고 이후 홈스쿨을 하면서 공부에만 몰두하면서 외부와 단절하며 어려움을 겪었으나 동아리를 알게되면서 친구들의 자극으로 대학진학에의 목표가 생겼다.

나.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선정 이후 삶의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에 대한 사전 설명과 서면 동의를 구한 후 심층면담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면담은 Seidman(2009)이 설계한 세 번의 면담구조

를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세 번의 면담 구조는 첫째, 연구참여자의 경험 맥락에 대한 생애사에 집중하고, 둘째, 연구참여자의 경험의 맥락 속 세부적인 내용을 재구성 하도록 하고, 셋째, 자신의 경험이 갖는 의미를 반영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개인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참여자 별로 2회 기준, 3일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진행하였고, 면담시간은 연구참여자의 진술에 따라 약 60분에서 120분 정도로 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1회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심층면담에 앞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면담진행 방식, 인터뷰 질문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먼저 제공하였다.

면담은 청소년 유관기관의 담당자가 수련관에서 인터뷰를 진행 해 줄 것을 요청하여 수련관 내 동아리실과 공부방에서 면담을 하였고, 연구참여자 편의와 자신의 경험을 편안하게 인터뷰하기에 수련관이 좋은 장소로 확인이 되었다. 담당자가 연구참여자하고 인터뷰 날짜가 정해지면 인터뷰 진행할 때 마다 인터뷰 날짜, 시간도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여 연구자는 연구참여자하고 인터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하루전날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하였다. 인터뷰 일정은 연구참여자의 시간에 맞춰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상황에 따라 조절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사전 동의하에 녹음기로 녹음을 하였다. 연구자는 녹음에 대한 비밀보장과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사전에 설명해주었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비밀보장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인터뷰 이후 첫 면담시 녹음하였던 자료를 전사하여 연구참여자에게 자신의 인터뷰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연구절차를 확인시켜 주었다.

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에서는 양적연구에서와 달리 윤리적인 문제가 민감하게 다루어진다. 양적연구는 연구자와 연구대상 사이에 직접적, 대면적 접촉이 거의 없어 익명성 유지를 할 수 있으나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사이에 세밀한 개인적 측면과 맥락을 강조해야하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에 민감해야 한다(김윤옥 외,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연구를 진행하기 전 연구목적과 연구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사전설명에서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 참여여부 결정과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중단 할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성명은 반드시 가명을 사용할 것과 녹취된 면담과 분석자료는 연구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과정의 보안유지에 대한 약속도 포함하였다. 이러한 모든 내용은 연구 참여 동의서에 제시하였으며 서면 상 동의를 구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도중 비밀보장에 대해 질문을 받기도 했으며 개인별 인터뷰를 시작 할때마다 인터뷰에 대한 모든 과정을 재설명하였다.

라. 연구의 평가기준

질적 연구에서의 엄격성은 연구자가 자신이 연구하려는 작업과 결론이 연구하려던 주제에 맞게 제대로 연구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한 과정으로 연구자가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작업과정이다(김영천, 2013a).

본 연구는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가능성, 일

관성, 중립성의 네 가지 평가기준으로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고자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true value)이다. 양적연구의 내적타당도에 속하며 연구의 발견이 얼마나 실재에 근접해서 측정되었는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현상에 대하여 얼마나 생생하고 충실하게 연구하는가 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난 후 분석한 결과와 원래 진술로 되돌아가 그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본인에게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가짐으로써 본인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기관의 실무자와의 면담과 문헌자료 등을 참고하여 참여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하였다.

둘째, 적용성(Applicability)이다. 양적연구의 외적타당도에 해당하며 연구의 결과를 또 다른 상황에 얼마나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이는 연구참여자의 진술이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경험의 의미를 재확인 하거나 더 이상의 다른 진술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추가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와 면담을 끝낸 후에 본인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기를 원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메모와 녹음으로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이다. 양적연구의 신뢰도에 해당하며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단, 연구자가 자료수집과 분석 과정을 기술하고 결과에 대하여 다른 연구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때 일관성이 높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질적연구로 박사학위가 있는 1인의 조언과 지도교수와 함께 검토하여 자료 분석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와 자문을 받음으로서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넷째, 중립성(neutrality)이다. 양적 연구의 객관성에 해당하며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 모든 편견을 배제하는 것이다. 연구자가 가지는 모든 선입견이나 가정을 먼저 확인하고 연구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현상학적 환원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질적 연구 시작과 함께 연구자가 느낄 수 있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모든 선입견, 편견 등을 연구가 완결 될 때까지 경계하였으며, 계속해서 실행 해 나가야 할 연구자의 태도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의 평가기준을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4> Lincoln과 Guba(1985)의 4가지 평가기준

평가기준		적 용
사실적 가치	내적 타당도	연구참여자와 경험일치여부 확인 실무자와의 면담, 문헌자료 등 참고
적용성	외적 타당도	새로운 정보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 수집
일관성	신뢰도	질적연구로 박사학위 1인의 조언과 지도교수와 분석과정 결과에 대한 평가 자문
중립성	객관성	현상학적 환원의 태도로 선입견, 편견 경계

마.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 4단계를 기준으로 면담의 녹취자료를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는 전체를 인식하는 단계이다. 연구참여자에게서 얻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청취하고 애매한 내용은 여러 번 들으면서 전사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의 전사를 끝낸 뒤 전사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

구자는 편견이나 선이해를 배제하는 자세와 연구참여자 입장으로의 태도가 되려고 노력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내용을 인지하고 연구자의 직관을 파악하면서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며 의미단위를 구분하는 작업을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현상을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텍스트에 밑줄을 그으면서 의미단위를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6명의 연구참여자로부터 423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해 내었다.

세 번째 단계는 의미단위를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도출한 연구참여자들의 의미단위를 서로 비교하면서 관련 있는 의미를 찾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위로 요약하여 연구참여자의 일상적인 표현을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의미단위를 대조함으로 관련성과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2단계에서 도출된 423개의 의미단위를 순환적으로 반복하여 분석하면서 학교밖 청소년의 경험구조와 적합하지 않거나 중복된다고 생각되는 의미단위를 제외하고 최종 108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여 사용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변형된 의미 단위를 구조적으로 통합하는 단계로 학문적 용어로 연구참여자의 경험의 구조를 목록화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학교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본질과 유사한지 계속 검토하면서 주관적 삶의 경험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3개의 주제와 8개의 범주 그리고 22개의 구성의미로 학교밖 청소년의 삶에 대한 경험의 구조를 목록화하였다.

바. 연구자로서의 준비와 선이해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전체 연구과정에서 연구도구로서 참여를 하여 직접 현장에 들어가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 분석의 과정에서도 연구자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게 된다(김영천, 2013a). 그만큼 연구자는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연구자의 선지식이나 선이해는 자신의 생각을 입증하려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데, 이는 연구하고자하는 목적과는 다른 잘못된 선택이 된다(김윤옥 외, 2009). 그러므로 연구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가치, 판단 등을 점검하는 자세를 가지고 일체의 판단을 중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경험과 그 의미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자가 본 연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자의 선 이해는 다음과 같다.

- 1) 학교밖 청소년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 2) 학교밖 청소년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 불투명 할 것이다.
- 3) 학교밖 청소년은 정서적 지지가 부족할 것이다.
- 4) 학교밖 청소년은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으로 노출을 꺼려 할 것이다.
- 5) 학교밖 청소년은 가정폭력 및 학교 내 교사와의 갈등으로 학교를 그만 뒀을 것이다.

IV.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6명의 연구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내용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기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의미의 본질적인 내용과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Giorgi의 분석과정을 적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도출해 공통점 혹은 특징적인 부분을 주제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2개의 구성의미와 8개의 범주, 그리고 3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표로 제시하면 <표-5>와 같다.

<표-5> 학교밖 청소년의 삶의 경험

주제	범주	구성의미
학업중단 전 삶	부모에 대한 불신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함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상실감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적대감
	학교생활에의 자괴감	또래친구의 괴롭힘
		선생님의 무관심
	외로움과 소외감	학업 흥미 상실 수용보다 외면됨
학교밖 삶의 경험	생활변화로 인한 무기력	무의미한 생활의 연속
		게임, 인터넷에 몰입
		기대와 다른 대안학교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현실장벽에의 직면과 어려움	무기력한 생활의 지각
		부모와의 갈등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전환점	관심과 지지를 받음
		경험을 통한 성취감 변화와 성장을 실감함
삶과 목표	삶의 의미와 목표	도전하는 삶
		목표와 꿈
	미래를 위한 바램	지원서비스
		사회에 하고 싶은 말

1. 학업중단 전 삶

연구참여자들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삶의 배경에는 부모에 대한 불신과 학교생활에의 어려움, 외로움과 소외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밖 청소년들은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과 안정적인 분위기, 민주적이고 일관성 있는 양육을 원하였다. 또한,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원하였지만 무관심과 괴롭힘, 소외로 학교생활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학업에 흥미를 잃고 주변 사람들로 부터 수용보다는 외면되면서 외로움과 소외감을 경험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청소년들의 가정과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학교밖을 선택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가. 부모에 대한 불신

(1)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함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로부터 따뜻한 보호와 애정을 원하였지만 대부분 부모의 맞벌이나 가정 경제상황의 어려움, 가정불화로 돌봄 부재나 방임된 채 성장하게 되어 부모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원망과 외로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지영이의 아버지는 바쁜 업무로 인해 집에 있어도 대화 나눌 시간 없이 주무시기만 하였고, 어머니도 늦은 저녁이나 주말 외에는 볼 수 없어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동훈이도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어릴 때는 친척집에 맡겨지거나 부모와 수개월에 한번정도 만날 수 있었으며, 최근에 부모님과 같이 살게되었지만 정서적 교감의 어려움이 있었다.

제민이는 부모 이혼 이후 중학교 때까지 누구의 보살핌 없이 집에 홀로 방
임된 채 거주하게 되었고, 소희도 아버지의 실직으로 가정경제가 어려워졌
고, 힘든 상황 속에 동생이 태어나면서 부모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서운함,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아빠가 거의 일만하고 다니셔가지고 집에 있어봤자 자는거 밖에 안봐가지고
말하는 것도 없고.. (엄마랑도)저녁이랑 쉬는 날만 마주치고 그 외에는 전혀
얼굴 못보고.. (지영)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다보니까.. 저를 돌봐줄 수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곳저곳 다니다가.. (중략)옛날에 일하실 때는.. 좀 맨날 나가계시고.. 일
주일동안 나가계시다가 두 번 들어오시는데요.. 그때는 아무래도 아빠가 집
에 안계시니까. 생각을 안해봤는데.. 요즘 자영업을 하시면서.. 좀 근처에
돌아다니시거든요.. 매일 들어오셔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집에 계
신거는.. 많이 산거는 6개월 정도 된거라서 생각을 안해 본거같아요..(동훈)

이혼하시고.. 중학교 때까지 혼자 살았거든요.. 자취하듯이.. 그때 혼자..
살았었는데.. 그래서 그때 많이 외로움을 땀죠..(제민)

아빠가 직장을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하시면서 갑자기 형편이 안 좋아지고..
거기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대게 많이 받으셨어요.. 그냥 거기에.. 제가 7살
때 동생이 태어났는데 엄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여러 가지 아프
게.. 문제가 있게 태어나가지고 진짜 대개 다 같이 힘들어 하다가.. (중략)
부모님도 힘들어 하시긴 했는데 그 당시에.. 동생이나 가정형편이 힘들어서
저를 신경 쓸 틈이 없었을 거예요..(소희)

(2)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상실감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가족해체라는 충격과 상실감에 혼자라는 두려움,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다. 지영이는 부모의 이혼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보았으나 아버지가 내린 결정을 말릴 수 없어 이혼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제민이는 가게를 같이 운영하는 부모님 모습에 이혼 사실을 전혀 몰랐으나 뒤늦게 알게 된 사실에 놀라움과 혼란을 경험하였다. 또한, 부모님 이혼으로 어머니랑 산다고 하였지만 어머니는 집이 아닌 가게에서만 지내고 있었으며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 미움과 서운함, 반항심이 생기게 하였다.

우선 저는 외동이고.. 엄마랑 아빠랑 살고있었는데.. 이번 1월에 이혼하셔가지고.. 네.. 지금 엄마랑 살고있어요..(중략) 제가 이혼 안했으면 좋겠다고 문자도 보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먼저 이혼하자고 말씀했거든요 그랬는데.. 좀 있다가 결정하시는 편이라서 그런거는 안되는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거겠죠.. (지영)

그때 제가 모르게 하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이혼사실을 알아서.. 그땐 좀.. 충격이었죠.. 초등학교 5학년쯤에.. 말씀하셔서 알게 됐어요.. 저한테 안보이실려고 일부러.. 이혼하시고.. 같이.. 가게 같이.. (아버지랑은) 한달에 두달에 한번씩.. 가끔 연락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어머니는.. 제가 찾아가야지 볼 수 있었고.. 바쁘다 그래서.. (제민)

(3)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적대감

연구참여자들은 아동 청소년기에 부모에게서 수용되기를 바라고 따뜻한 돌봄, 자율적인 양육을 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양육 방식으로 부모에 대한 분노, 적대감,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다. 종혁이는 무능한 아버지의 술주정 때문에 가정불화가 생겨 어머니는 가출하였으며, 모

든 모욕적인 폭언과 신체 폭력을 혼자 감당해야하는 시간을 보냈다. 동훈 이도 공부나 진로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보다 화를 잘 내시는 아버지가 불편하고 무섭기도 하여 거리감을 두며 피하는 관계가 되었다. 지영이는 자신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은 직업이나 진학만 권유하는 부모님과의 대화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 같은 경우.. 돈이 안벌리기도 하고.. 제 아버지가 술버릇이 굉장히 안 좋은 편인데.. 그냥 평소에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거 하라고 이런 식으로 말해도.. 술마시고 오면은 막.. 저한테 이런저런 말을 하거나 막.. 니 인생은 답이 없다면서 좀 뭐라하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고.. 아버지한테는.. 술 먹고 들어 오면은.. 이런저런 욕도 많이 듣고.. 맞았죠..(종혁)

아빠 있을 때는 공부얘기를 절대 안해요.. 아빠 있을 때는.. 갑자기 버럭하시는 그런게 있어요.. 그래갖고.. 맨날 화만내시고 짜증내시니까.. 말하는게 좀 걸리죠.. 그렇게 되면.. 그러고 아빠 있을 때는 피해요.. 아빠가 니 뭐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이러면.. 내가 알아서 할 게 막 이러면서.. 좀.. 말하는게 무섭다 해야 되나.. 그냥 네.. (동훈)

옛날부터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 때부터 두 분이.. 너는 공무원 해야 된다. 뒤에 ‘사’자 들어가는 직업만 해야된다 계속 그런 말씀을 해 오셨고.. 못 해도 공무원.. 너는 대학교 꼭 들어가서 공부해야 된다.. 너는..(지영)

나. 학교생활에의 자괴감

(1) 또래관계의 어려움

학교 안에서 친구들 사이의 친밀도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중요한 요인인데(김민, 2001) 연구참여자들은 또래관계가 잘 이루어져야하는 학교에서 또래친구의 따돌림으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여 교실 내 혼자 남게 되는 소외감, 억울함, 죄책감을 경험하였다. 지영이는 태어날 때부터 허약한 체질로 학교에 결석을 자주 하게 되자 또래친구들로부터 위로보다는 따돌림, 비난을 받아왔고, 전학을 간 이후에도 이전 학교생활과 같은 힘든 어려움이 되풀이되자 어머니를 설득해 자퇴를 하게 되었다. 소외의 경우도 3학년이 되면서 이유 없이 친구들의 따돌림을 당하였고, 도와주는 친구 없이 소외되는 학교생활을 이어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어머니로부터 자퇴를 권유받게 되면서 바로 자퇴를 선택하게 되었다. 오빠도 같은 시기에 자퇴를 하였고, 동생도 비슷한 경험으로 최근에 자퇴를 하게 되었다. 동훈이도 6학년이 되면서 일부 다른 친구들과 친해지기는 했지만 짝인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걸들리게 되면서 억울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제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안 좋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이케.. 이케 친구들이랑 놀 때도 ‘애는 왜 학교도 잘 안나왔는데 놀고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짜고짜 와가지고 화내는 애들도 있고.. 제가 그때 대게 어이가 없었는데.. 억울하기도 하고..그냥 좀 그때 많이 아픈 것도 스트레스가 더 와지잖아요.. (중략)한 학기는 다니다가 여름방학 되고나서 제가 먼저 전학을 갔었어요.. 그 학교에서도 이렇게 봐왔는데 이렇게 애가 안 오고 하니까.. 이케 분위기가 안 좋은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보고 안다니는게 좋을 거 같다고 해서.. (지영)

그냥 조금 따돌림을 당했어가지고.. (언제?) 3학년 시작하고 얼마 안되어가지고.. 자기들 맘에 안든다고.. (편 들어주는 친구는 없었니?) 처음에는 있었는데.. 절 괴롭히는 애들이.. 그 애들한테도 또 저랑 같이 놀면 같이 왕따시킨다고 그랬나봐요.. 그래서 그때 학교 그만 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 대게

많이 해서.. 엄마가 건의하셨을 때 바로 자퇴하겠다고.. 고등학교 시작할 때 자퇴를 하고 오빠도.. 검정고시를 졸업하고 다시 대학교 들어갔어요.. 작년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동생도 이제.. (소희)

5학년 때 친했던 애들이 6학년 때 같은 반이 안됐어요.. 딱히 우리 반.. 그러니까 짝이 있잖아요 초등학교에는.. 개량도 트러블이 있었고.. 애들이랑 그렇게 친해지지 않다 보니까.. 좀 걸돈다 해야 되나.. 걸돌긴 했는데.. 나 중되어서는 이렇게 친구관계가 만들어졌어요.. 몇 명이랑.. 몇 명이랑 만들어졌는데.. 걸돈다는 걸 엄마가 아시고..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당시에 친해지니까 아.. 괜찮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중략) 친구관계 때문에 힘들어했었어요.. 개가 남이 손해를 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개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동훈)

(2) 선생님의 무관심

연구참여자들은 가정 다음으로 학교 안에서 선생님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성적이 우수하거나 모범적이지 않으면 선생님으로부터 무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학교생활의 흥미나 기대를 상실하게 되었다. 소희는 또래친구의 따돌림으로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방관자적인 대응에 좌절, 실망하게 되었고, 제민 또한 부모의 돌봄 부재에 이어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관심보다는 무관심 대상으로 되어 공감이나 위로를 받을 수 없었다.

선생님한테 얘기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학교 폭력이 그렇게 샘한테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제도 같은 것도 세지 않아서.. 애들 끼리 잘 해결해봐라 하고 넘겨가지고 샘도 그냥 무시하고..(소희)

많이 어려가지고 바로 잡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게임만 했었죠.. 선생님하

고는 뭐. 잘..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봐주시더라고요.. (제민)

다. 외로움과 소외감

(1) 학업 흥미 상실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의 맞벌이와 가정형편의 어려움, 권위적인 양육방식에 무기력해지며 학교생활과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되었다. 종혁이는 어릴 때 어머니의 강압적인 학습방식으로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하였지만, 주도적이지 않은 학습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반발심이 생겨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었다. 이에 성적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대학진학에 대한 기대마저도 낮아져 대안학교 진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제민이도 어린 나이에 혼자 집에 거주하게 되면서 불규칙적인 생활로 바뀌었고 학교생활과 공부도 소홀해져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이 나오게 되었다.

그때는 공부가 넘하기 싫어서 손을 놓다시피 했었죠.. 중간권이었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점점점점 떨어져가지고.. (종혁)아무래도 공부도 하기 싫었지만.. 일단 (성적이) 바닥을 치고 있었으니까.. 우리나라는 대학은 갈 수 있지만 취직이 되는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차라리 그냥 1년 쉬었다(대안학교) 가는게 더 나을거 같아서.. (종혁)

지각을 대게 많이 했었어요.. 혼자 있다보니까.. 늦잠을 자고.. 또 가기 싫고 해가지고.. 늦잠을 많이 자가지고.. 늦잠을 많이 자가지고.. 그거 땀에.. 성적이.. 내신 성적이.. (제민)

5학년때부터 좀 점수가 떨어지더니 6학년 때는 거의 반 평균이.. 중간으로 그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 또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

있었어요.. 처음인데.. 성적 때문에.. 이때까지 영어는.. 다른 애들 다
잘나오고.. 저도 잘나오다가.. 갑자기 그렇게 떨어지니까.. 영어를 어떻
게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런 부분때문
에 있다가.. 엄마 아빠가.. 크리스찬 학교인데 이게 대안학교인걸 찾은거
예요.. (동훈)

(2) 수용보다 외면됨

연구참여자들은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감과 이해, 수용받기를
원하였지만, 오히려 무관심과 외면, 괴롭힘을 당하면서 억울함, 서운함, 외
로움을 느끼게 되었다. 소희는 이유 없이 괴롭히는 친구들과 대화를 시도
해보았지만 무시당하면서 혼자가 되었고, 지영이도 전학 간 학교에서도 또
래들로부터 몸이 좋지 않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이해보다 비난과 외면을
받았다. 제민이도 어머니와 누나의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되면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몇 번 얘기하다가.. 개들이 말도 안듣고 점점.. 얘기를 해도 무시만 하니
까 그냥.. 얘기 안했죠.. (소희)

여기서도 제가 몸이 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전학 가고 나서.. 원래 구
준히 다녔어야 됐었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병원가고 학교가고 이렇게
안가거나 그러니까.. 애들이 밥먹으러 왔냐고.. (지영)

일하신다고 밖에서 계속계시고.. 누나도 바빠서 안들어오고.. 그래서 혼
자 있게 됐죠.. (제민)

동생이 저보다 훨씬 더 공부도 잘했고, 만드는 것도 잘했고 정말 잘난 동
생이었거든요.. 나갔을 때 정말 제 친구 엄마 아닌 이상 동생 자랑을 해

요.. 딱히 저는 자랑할 게 없었거든요.. 동생 자랑만 족 했는데.. (준범)

2. 학교밖 삶의 경험

연구참여자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학업중단 직후 각자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학업중단 이전과 다른 학교밖 생활경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무기력해지고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학업중단 선택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도 하였고, 소속감 부재로 정체성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초기경험의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였지만,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와 또래친구와 지지체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학교밖 삶의 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생활변화로 인한 무기력

(1) 무의미한 생활로 이어짐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중단 직후 학교와 친구의 괴롭힘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을 느끼게 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생활로 이어지면서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소회는 자퇴를 하고 난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후련함과 엄마의 권유로 공부방에서 공부도 해보았지만 목적없이 공부에만 매달리는 무계획적인 생활은 무기력을 느끼게 되었고,

종혁이도 대안학교 진학 전까지라는 핑계를 두며 목적도 계획도 없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되게 후련했죠.. 이젠 강제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잠도 실컷 잘 수 있고..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 평일에도 나갈 수 있고 약간 이런거랄까.. 처음에는 공부안하고 놀고 먹고 자고 하다가.. 몇 주 있다가 엄마가 공부방 한번 가보라고 해서 공부방 가고.. 그때 사실 검정고시라는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무작정 목적 없이 공부하고.. 놀 때 놀고 자고(2년정도)(소희)

솔직히 일단 자퇴지만 지금 생각하면 엄청 생각 없이 했었죠.. 그니까.. 대안학교를 가게 되지만.. 일단 대안학교도 자기 스스로 한다는 걸 기본 베이스로 두고 있는데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안학교 다니고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일단 대안학교 갈 때까지 놀만큼 놀아야지 하면서 계획 없이 놀았던거 같아요..(종혁)

(2) 게임, 인터넷에 몰입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중단 이후 무기력한 생활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과 불안, 공허함으로 인해 게임이나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었다. 준범이는 부모님과 홈스쿨링 경험이 있는 (대표)형을 알게 된 이후 형의 영향으로 부모로부터 고등학교 진학이 아닌 자퇴를 권유받게 되었다. 이후 생활은 자신도 선택하였던 자퇴였지만 계획했던 것과 달리 불규칙적이고 나태해지면서 게임에 몰두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다. 제민이도 자퇴이후 계속된 불규칙하고 홀로지내는 생활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TV나 게임에만 몰입하게 되었다. 지영이도 자신의 몸상태와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자괴감에 하루종일 집안에서 핸드폰,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제가 이사를 왔는데 그 대표분이 학교를 안가고 뭐 이러 저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름 괜찮은 갑다. 뭐 이렇게 있으면서 저를 좀.. 자퇴하게 만들었죠.. 부모님이 원하셨긴 하셨지만 나도 결정을 한거잖아요 (중략) 처음 나왔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은 있었는데.. 집에서 일어나서 아침밥도 안 먹었어요.. 점심 먹고 게임하다고 자고.. 점심 먹고 게임하고 자고.. 반복했으니까.. 부모님도 점점 답답해하고.. (준범)

게임이요.. 게임하면서.. tv 같은걸 보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때는 이때까지(학업중단 전) 했던게 있고.. 1시에 일어나가지고 게임하고 새벽에 자고.. 2시쯤 일어나가지고 게임하고 그랬었는데.. 그땐 진짜.. 많이 어려가지고 바로 잡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게임만 했었죠.. (제민)

의지할 때가.. 그래서 인터넷.. 제가 집에 있으면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가 그때 유일하게 할 게 있었던 게 핸드폰 밖에 없었거든요.. 저한테.. 핸드폰 검색.. 엄청 많이 하고.. (지영)

(3) 기대와 다른 대안학교

연구참여자들은 공교육을 벗어나 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으로 대안학교 진학을 선택하였으나 대안이 되지 못한 학교 시스템에 실망감, 회의감, 무가치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종혁이는 꿈 찾기에 도움이 되기보다 반복되는 대안학교 교육에 대한 실망에 기대가 낮아져 더 이상 대안학교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제민과 동훈이도 학교와 별반 달라보이지 않는 교육 시스템과 진로와 맞지 않은 특수대안학교의 진학에 대한 아쉬움, 대안학교의 부정적인 변화에 대한 쓸쓸함을 느끼게 되었다.

네 근데.. 지금 거기서 별로 딱히 배울 걸 못 찾고 있기 때문에 나가지는 않

고 있어요.. 입학은 하고 한동안 나갔었는데 이제 연말 되니까.. 거기도 놀
 똑같은 거만 하고.. 딱히.. 저도 일단.. 어느 정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
 목표와 관련해서 대안학교를 가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안가죠.. (종혁)

대안학교란.. 그냥 학교랑 비슷한 거 같아요.. 목적만 다르지.. 어.. 딱히
 크게 다르다고 생각 안 해 봤어요.. (제민)

특정과목을 많이 배우는 학교다 보니까요..(종혁)저희 학교가 졸업을 하면
 외국대학교를 갈 수 있는 학력이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하고 갔던
 거예요.. 저한테는 굳이 아무생각 없는데 굳이 외국 대학교를 갈 필요가 없
 었잖아 그렇다보니 조금 아깝기도 하구요.. 그래서 아깝기도 하면서 정말 좋
 은 사람들한테는 좋은 학교지 않나 싶어요.. 변질만 안되면 최고죠..(동훈)

(4)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연구참여자들은 학생신분이 아니며 소속감마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주
 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마주하거나 의식하게 되어 죄책감, 위축 등 심적인
 부담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참여자 대부분은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정산
 시 들리는 멘트에 주변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와 불편한 시선을 자주 마주
 하게 되었고, 문화 활동 등 외부활동에도 불편한 대우와 차별을 경험하였
 다. 동훈이의 경우도 먼저 편견을 가지고 다가오는 시선에 개교기념일이라
 소극적 대응을 하기도 하였고, 제민이도 친가를 방문하게 되면 학교를 그
 만두었다는 사실에 친척들과의 불편한 시선을 마주하게 되었다.

일반 버스를 타고 가는데 청소년 요금을 찍었다는 이유로 (기사)아저씨가
 ‘왜 너는 학생요금을 내냐?’ 그래서 저는 아.. 제가 아직 학생이라 청소년
 이라 지금 이렇다.. 아저씨가 ‘그럼 청소년인데 왜 학교에 안가고 이쪽에

있냐?’ , ‘아 저 학교 나왔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입니다. 그때 아버지 표정이 너무 안 좋았고 말없이 가라 하시더라구요.. 저도 그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죠.. 이게 죄인가? 죄라면 인정하는데 이건 죄도 아니고.. 왜 내가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지? 이런 적도 있고. 한번은 창원에서 부산으로 가는 시외 버스를 타는데.. 99년생이라고 하니까 못 믿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증)민증을 보여줬죠.. 민증을 보여줬는데.. 근데 (주민등록증)민증은 안된다 학생증을 보여달라 근데 그때 제가 학생증도 청소년증도 없었어요.. 그래서 둘 다 없다 하니까’ 다음 부터는 꼭 갖고 오세요’ 해서 네 그랬죠.. 네 저는 청소년증은 그렇다치고 학생증은 제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저 학교 나와 가지고 이런거 좀 받기 힘들니다. 왜 학교 나왔냐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그때도 맘이 안 좋았죠.. (준범)

오전에 평일날 영화 보러 가면은 애들 학교 갈 시간에 나와 있다고.. 의심한 말이에요.. 그냥 청소년 요금으로 영화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오전에 나와 있으니까 청소년이 아니라고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안 믿는거예요.. 그때 청소년증 보여줘야 믿으니까.. (소희)

그냥 길가다 만나시는.. 만나는 모르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대안(학교).. 그냥 개고기념일이다 이러면서 쉬는 날이다 하면서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 가지구요.. (동훈)

친가 같은데 가거든요.. 명절 때.. 친가 같은데 가면 별 말씀을 안하시는데.. 대게 무의식적으로 나오시죠.. 그냥.. 지금 학교 어디 다니고 있냐 하면.. 어 하면서 측은하게 바로 보시고.. (제민)

나. 현실장벽에의 직면과 어려움

(1) 무기력한 생활의 지각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중단 이후 경험을 통해 현실장벽과 부딪히면서 무기력해지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좌절감, 자책감을 느끼게 되었다. 준범이는 학교를 그만두고 난 후 계획에 대하여 자신하였으나 의도와 달리 불규칙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형(홈스쿨)의 추천으로 학원을 다녀보았으나 여전히 게임에만 몰입하게 되어 나태해진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후회를 하기도 하였다. 지영이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검정고시와 대학진학을 목표로 학원공부를 하였지만, 잦은 결석으로 학원에서도 비난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자괴감이 들었다. 소희도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목적없이 공부방을 다녀보기도 하였지만 목적 없는 공부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압박감과 위축감에 바깥활동이 줄어들게 되었고 낮과 밤이 바뀌는 불규칙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동훈이와 종혁이도 대안학교를 그만 둔 이후 혼자서 검정고시를 목표로 공부에만 열중하기도 하고, 소속 없이 외부와 단절된 채 오랜 시간동안 생활하다 보니 뭘 해야 할지 모를 막연함과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초반에 계획은 갖고 살았거든요 집에서 하루 3시간 책을 보고 검정고시 공부도 하다가 2시간, 3시간 자유시간 갖고 학교에 있었던 공부 외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써보자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2시간의 자유시간이 6시간이 되고 9시간이 되고 일어나면 자유시간 그러고 자는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다가 야.. 이걸 좀 아닌데 어느 날 생각을 가졌고 저 형도 이렇게 하면 자퇴할 이유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있었고.. 저에게 그 영어 학원을 형이 다니는 영어 학원을 소개 시켜 줬었어요.. (중략)일어나서 게임 쪽 하다가 어.. 학원 갈 시간인데 학원하고 학원 끝나면 게임해야지 게임 하고.. 이게 쪽 반복 됐었어요 네.. 그러던 와중에 다시 한번 아~ 이럴려고 자퇴한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준범)

제가 부모님이 15살에는 니가 대학가서 공부하라고 하셔가지고. 그게 꿈이

셨거든요 부모님한테는.. 근데 대게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되겠다 해서.. 공부하는게 제 목적이었었어요..그래서 부모님도 학원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학원 생활도 하고.. 하다보니까.. 학교 다니는 거랑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케 학원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다 집에 오고 또 공부하고.. 몸은 아픈데 또 못가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안 좋게 보고.. 그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또 제가 생각해 보기엔 하나도 다르게 없는거예요.. 공간이 작다 뿐이지..그 외는 다 똑같은 생활이라고..이게 뭐지 싶었지..(지영)

집 근처에 공부방이 있어서 거기서 공부하고.. 그때 사실 검정고시라는 것도 몰랐단 말이에요.. 무작정.. 목적 없이 공부하고.. 놀 때 놀고 자고.. 2년.. 6학년 쯤 되어서 계속 집에서만.. 거의 집에서만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 나오고 나서는 친구들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몰랐고.. 음.. 뭘 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래서 제 하고 싶은 거만 하니까.. 어느 순간 뭘 해야 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까먹은 거예요.. 그 때 약간 히키코모리처럼 소심해가지고 집밖에 나가는거 별로 안 좋아하게 됐고.. 낮과 밤이 바뀌게 됐고.. (소희)

홈스쿨을 하기 시작 했는데.. 그때는 되게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뭐 없고.. 그냥 공부만 하자.. 아침 일어나고 밥먹고 공부하고 밥먹고 공부하고.. 공부 이래갖고.. 계속 공부만 했어요 하루종일 중간에 놀러가는거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은둔형이 됐죠.. 은둔형 생활을 하다가 검정고시가 끝났어요.. 저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목표가 사라진거죠.. 그래갖고 어 목표가 없다 난 이제 뭐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좀.. 내가 하고 싶은거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고 싶은게 없었어요.. (동훈)

공부를 따로 할려고 자퇴를 한거면은 관계없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학교 자퇴하고 몇 달 동안 아무데도 소속 안된 제가.. 놀기만 했을 때.. 방향성도 잘 모르겠고.. 저.. 외롭잖아요.. 몇 달동안 혼자서 놀면.. 그래서.. 인관관계도 그렇지만.. 자기가 만일.. 놀만큼 놀고 짬걸 할려고 했을 때 그걸.. 원만하게 찾기 위해서도 어느 단체 같은 데에는 한 두 군데쯤은 속해 있는게 좀..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혁)

(2) 부모와의 갈등

연구참여자들은 불규칙하고 나태해진 생활이 길어지게 되면서 진로준비나 진로결정, 진학에 대한 결과물을 독촉하는 부모와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꿈을 찾고자하는 대안으로 대안학교에 진학도 해보았지만 진로에 대한 정보부족과 진로결정의 어려움은 부모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위기감으로 다가왔고, 갈등관계를 피하고자 반항하거나 회피, 위축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저는 아직 정해진게 없는데 사실 부모님은 빨리 결정을 하셨으면 좋으시겠
죠.. 고 3인데.. 그런 것 때문에 맨날 싸웠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되
고 결정이 안됐는데 결과물을 원하신다고 해야 되나 그런거 때문에 사실 요
즘 들어.. 사실 옛날부터 그런게 있었어요 그냥 공부의 길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빠랑 얘기하면 답이 안나왔어요.. 아빠 있을 땐 공부 얘기는 일
도 안 꺼내구요.. 엄마랑 그냥 낮에.. 엄마 나 이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라는 얘길 해보고.. 그럼 엄마가 그에 대한 방법들이나 그런 거를 알아와
라.. 이러면서 네 그렇게 쯤.. 아빠 있을 때는 공부얘기를 절대 안해요.. 아
빠 있을 때는.. (동훈)

음.. 내 꿈은 여전히 못 찾겠고.. 집에서는 이제 절반이상이 지나가니까..
말이 심해지기 시작할 때라.. 아.. 그냥 학교를 만나오고 다녔으면..(종혁)

(3)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들과는 학교안과 밖이라는 상황
이 달라지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 만날 수 없기도 하고, 또래의 괴롭힘으로

학교를 그만 둔 경우 대인관계의 두려움으로 친구를 피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불안함에 학교밖 어디에서 공감을 형성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함과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동훈이는 교회에서 교회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학교를 다니는 또래들만의 유행에 대한 공감부족이 소외감을 느끼며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움을 경험하였다.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초등학교 때 자퇴한 소희는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친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혼자 남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지영이도 친구의 따돌림으로 인해 대인관계의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자신을 찾는 친구의 연락마저 피한 채 핸드폰 정보검색만 집중하다 친구들과 멀어지기도 하였다.

사실 제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 일반 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다른 애들이랑 말하고 하면서 좀.. 유행이라 해야하나.. 좀.. 자기들끼리 학교나.. 대부분 다른 학교를 다니지만 말하는거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참가를 못한다 해야 하나.. 네. 좀 참가를 못하고 좀.. 가만히 있죠.. 대화에 참가를.. 아는게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런 면이 많이 불편했던거 같고.. 친구가 없어가지구요.. 친구가 없으니까 나갈 일도 없고.. (동훈)

그때는 뭐 지원센터가.. 무슨 지역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맨날 집에만 있고 외로워하는데 외로워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게 좀 힘들었던거 같아요..(소희)

제가 그냥. 핸드폰을 옛날에는 하다보니까.. 연락같은 것도 제가 일부러 안 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연락도 뜸해지게 됐는데..(지영)

(4) 경제적인 어려움

연구참여자들은 부모에게서 받는 용돈이 줄어들거나 가정형편의 어려움으로 스스로 경제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밖 청소년은 일을 오래하지 않고 빨리 그만둔다는 인식과 문제아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일자리 구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꽤 어려웠죠.. 미성년자는 잘 안 쓰려고 하고 그냥 그만둔다는 인식도 있었고.. (종혁)

구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다음에.. 냉면집 다음에 다른 아르바이트 구하려고 했는데..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민)

다. 삶의 전환점

(1) 관심과 지지를 받음

연구참여자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늘 혼자라는 외로움과 소외감, 우울을 경험하였지만, 지원센터 선생님과 비슷한 경험의 또래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부모에게서 받지 못한 관심과 지지, 심리적 위안을 받게 되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변화를 느끼게 되었다. 준범은 철없이 방황할 때 손을 내밀어주고 같이 사업에 동참하게 해 준 형(대표)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어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고, 소희, 제민, 동훈이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센터에서 학교밖 청소년을 편견이나 차별 없이 공감해주고 이끌어주는 선생님의 격려로 용기를 얻게 되었다. 지영이도 센터를 다니면서 처음부터 활동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고 다양한 활동을 통

해 유익함과 즐거움으로 열심히 하게 되었으며, 더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주변의 인정과 칭찬이라고 하였다.

저는 철이 없었고.. 정말 생각 없이 생활하다가 저 사장님께서 저기.. 준범.. 사업같이 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했고.. 그때 딱 저도 그거였거든요 학교 나와서 제가 딱히 하는 것도 없고 이럴 거면 왜 학교 나왔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라가지고 바로 선택.. 제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까지 한거죠.. 자유의 맛을 보려는 호지 부지되고 또 저런 형 없으면은.. (중략)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든든한 지원군이죠.. (준범)

지원센터 쌤들.. 대개 성격들도 좋으시고.. 힘들 때 다 와서 위로해 주시고.. 사실.. 부모.. 부모님보다.. 더 좋은거 같아요.. 일단 부모님은 저랑은.. 학교밖 청소년을 안 만나 봤잖아요.. 근데.. 여기 쌤들은 수많은 학교밖 청소년들을 만나봤고.. 거기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애들마다 그 애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좋은거 같아요..(소희)

지금도 팀장님이시지만 학교밖 청소년을 맡고 계시면서.. 이런 이러한 동아리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보지 안겠냐고 고민하다가 좀 집에만 있다보니까 꺼려했어요 애들.. 새로운 제가 좀 새로운 분위기에 온다는 자체..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까 온다는걸 꺼렸는데.. 그래도 한번 해봐야 겠다 그러면서.. 하겠다 이랬는데.. 하면서 들어오게 된거예요..(동훈)

큰 힘이 된건.. 친구였던거 같아요.. 힘들 때마다 가서 푸념하면서 들어주고.. 또.. 친구만나서 여기도 오고.. 여기서 활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친구를 대개 많이 알게 됐죠.. 중요하죠. (중략) 학교에서는 쌤들 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잘해주는 분들도 있고.. 공부 잘하는 친구만 편애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러는데.. 이 쌤들은 다 같이 대해주시는거 같아요. (제민)

주위에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까..(웃음) 솔직히 칭찬을 못 받고 이렇게 저 혼자만으로.. 음.. 잘 못할 수도 있었을거 같아요.. 주위에서도 잘

한다 잘한다 해주시니까.. 그냥 그 말 들으면서 저도 뿌듯한 것도 많고 아..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말 해주시는거 만큼 이렇게 나두 잘하고 있구나 이
런 생각.. 괜히 즐겁고..(지영)

(2) 경험을 통한 성취감

연구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만든 동아리 활동경험에서 부모나 학교, 어른들의 지시에 의해 수동적으로 움직여지기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이는 각자에게 주어진 작은 사회적 역할에 책임감과 성취감을 얻게 되었다. 동훈이는 동아리를 알게되면서 공감할 친구를 만나기도하고 모임이 아니면 경험해보지 못할 행사 사회와 동아리 조례를 만들어보는 새로운 경험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소희도 토크콘서트 무대에 올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통해 소심하던 성격이 할수있다는 자신감을 얻기도 하였다. 종혁이는 점수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로이 쓸 수 있는 자기성찰이 되는 글쓰기에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고, 제민이도 동아리에서 각자 개별역할을 맡게 되면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친구 없다가 있게 되니까.. 선생님도 잘해주시고.. 행사를 할 때.. 제가 만약 혼자였으면 죽어도 안하게 될 짓을 하게 되니까.. (중략)모임을 하면서 많이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언제 제가 그런 격식적인 자리에서 사회를 해보고.. 조례를 만들어보고 그렇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동훈)

동아리에서 토크콘서트라고 무대 올라가서 사람들 다 불러서 얘기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대게 소심해서 사람들 앞에서 잘 얘기 못했는데.. 처음에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했을 때.. 뿌듯하고.. 해낸 거 같고 기분

대개 좋았어요.. (소희)

제가 바로 참가해서 글을 쓰라고 했는데.. 제가 글을 써본 적이 별로 없기도 하고.. 보통 글을 쓰라고 하면 자신의 글보다는..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글을 쓰잖아요.. 남들이 보기 쉬운.. 전 근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써서 냈죠.. 쌤이 딱 제 글을 보고.. 내 글을 쓰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쓰래요.. 그래서.. 좀.. 진짜 내이야기를 쓸수 있으니까.. 좋았던거 같아요..(종혁)

처음에 모르는 사람이랑 친해지지 않나요 동아리 들어오게 되면.. 친해지면서 하는 것도 있고.. 동아리에도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도 나름 사회생활처럼 이렇게 회장한테 이렇게 하고.. 총무한테 이렇게 하고 하면서 좋아졌던거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된거 같아요.. (제민)

(3) 변화와 성장을 실감함

연구참여자들은 비슷한 또래와의 관계 형성과 다양한 동아리 활동경험을 통해 소심하고 위축되기만 하던 경험에서 자신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주며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참여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자신이 하고 싶은 목표를 찾기도 하고 자신감을 얻는 계기도 되었다. 준범이는 동아리는 쉽지 않은 활동이지만 성장이라는 보상과 타인 앞에 자신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소희는 가만히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는 걸 깨닫고 사람들 앞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고, 지영이도 친구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위축되고 소심했던 성격이 활동의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성격으로 바뀌게 되었다. 종혁이는 뭘 해야 할지 불명확하던 자신의 삶에서 동아리 활동경험과 열심히하는 또래친구들의 자극

으로 대학진학의 목표를 세우게 되었고, 이를 위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분명히 동아리는 힘들어요.. 다른 동아리보다 더 힘들 수 있는데.. 꼭 추천하고 싶은 동아리거든요.. 힘든 만큼 성장을 하고.. 저도 작년에 비해서 선생님도 그렇고 여기 있는 친구도 그렇고 작년보다 훨씬 나아졌다.. 말하거든요. 저도 모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힘든 만큼 보상도 있고..(준범)

저 10대인데 안 궁금하시나요? 저 학교 안다닙니다.. 왜 학교 안다니냐? 저는 학교밖 청소년입니다. 학교 나와서 뭐하냐? 조그맣게 뭐 사업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걸 즐기는거 같아요..(동훈)

학교에선 제가 직접 안 나서면 애들을 사귄 수가 없잖아요.. 뭐 공부만 하니까.. 쉬는 시간에는 다 따로 놀기도 하고.. 근데 여기 와서는 자기가 나서야 친구를 만들 수가 있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게.. 동아리를 하거나 하면 소심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불고.. (소희)

옛날에는 남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대게 잘 못하고 말하는 것도 이렇게 조곤조곤 말해가지고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이렇게 소심하다는 소리도 대게 많이 듣고.. 거의.. 음.. 이케.. 빨리 빨리 포기한다고 니가 월하겠냐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전부다 반대로 된 거 같아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잘하고 즐겁고.. 말하는 활동들도 대게 즐거우니까.. 나한테 무슨 활동을 해보겠냐고 그러면 저는 그냥 한다고 그렇게 하고 제가 하는게 이케.. 하는게 가장.. 대게 예전보다는 이케 많이.. (지영)

대게 많이 밝아졌어요.. 전에는 밝다가 조울증 같이 밝다가 우울하다가 그랬었는데.. 지금은 대게 밝고 친구들이 말도 많아졌다고 하고.. (제민)

새로운 도전 같은 것을 한거 같아요.. 제가 안전한 길로 많이 간다고 갈려고 하고.. 그런 길을 추구하는 면이 많은데요.. 아 이런 부분은 사실상 초등학교에서 대안학교를 가는 거 보다는요.. 대안학교에서 홈스쿨을 하는 부분에서 많이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새로운 것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기간이 되었던거 같아요.. (동훈)

역시 아무래도 일단.. 약간.. 불확정해도 목표.. 명확한 게 없고 그때 그때 학교 다닐 때는 딱히 대학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근데 이렇게 생활하고 보니까.. 대학이 가보고 싶더라구요..(종혁)

3. 삶과 목표

연구참여자들은 각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써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자 하였다. 학교밖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하면서 직면하는 현실의 부정적인 경험과 긍정적인 경험을 함께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들은 기회를 찾아 새롭게 도전하는 삶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각자 다양한 경험 속에서 어려움도 겪었지만 미래에는 보다 나은 삶을 기대하며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설정하거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서 경험하는 참여자들은 자신들을 위한 지원서비스와 사회적 편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원하고 있었다. 학교밖 청소년들의 삶과 목표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삶의 의미와 목표

(1) 도전하는 삶

연구참여자들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뜻하지 않게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지만 학교밖에서의 경험을 통해 얻은 자기성찰은 새로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하였으며 학교밖 삶에 대해 후회보다는 만족하고 있었다. 동훈이와 준범이는 학교밖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고, 힘들기도 하지만 도전하는 삶이라고 하였다. 종혁이와 제민이는 방향만 다를 뿐이지 틀리지 않으며, 특별하거나 평범하게 나눌 필요 없는 삶이며, 다른 청소년보다 빠른 사회진출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였다. 이는 학교밖 청소년과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나누기보다 현재의 삶에 대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찾아 도전해 나가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시작과 부족한 면에서 보충한다 새로운 시작.. 이라고 많이 다가왔던 거 같아요.. 아무래도 새로운 환경에 가다 보니까요.. 다 처음인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학교를 그만두면서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동훈)

오솔길 남들보다 바른길 갈 수 있고. 좀 구불 구불 갈수 있기도 한데 그래도.. 뭐든 하는 자체가 도전이니까.. 저는 도전하면서 가는.. (준범)

뭔가 특별하다고는 별로 생각 안했어요.. (살아가는데 있어서?) 거의 비슷하죠.. 가는 방향이 다를 뿐이지.. (종혁)

빨리 사회에 나아갈 수 있는거 같아요.. 친구들이 학교에 공부하면서 생활하

는 동안..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사회에 나아갈 수 있을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방법의 차이지.. 저는 학교를 나왔다 학교를 간다 크게 의미를 주지 않은거 같아요..(제민)

(2) 목표와 꿈

연구참여자들은 경험을 통해 얻은 자기성찰에서 학교라는 울타리 안으로 다시 돌아가기보다 대학진학이나 자신이 이루고자하는 꿈, 다양한 경험에 도전하고자 하였다. 목표를 찾았거나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준범이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접고 학교복귀보다는 지금을 즐기며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현재를 선택하였다. 소희는 여행작가가 되기를 원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여행과 독서, 금전적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종혁이도 친구들과의 활동을 통해 자극을 받고 자신의 꿈인 의사가 되기 위해 대학진학이라는 목표가 세워졌다. 제민이의 경우도 더 많은 경험과 시야를 넓히기 위해 대학진학을 선택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영이는 아직 꿈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하였으며 좋아하는 그림에 대한 전문성이 키워지면 그림을 통해 누군가에게 위안이 되고 싶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찾아나서는 청소년으로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더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운 모습도 그리고 기대하는 모습도 있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지금-현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제가 싫은 공부도 하기도 하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게 아닌가? 아니면 쪽이 길로 가서 밀쳐야 본전 하면서 쪽.. 이 길로 가는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을 했어요.. 그냥 쪽.. 이.. 사람들과 같이 즐겁게.. 그런 식으로 쪽 가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그쪽에 최대한

일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대학 준비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들 때 좀
이런 이렇거면 학교를 다니지.. 그 시간에 많은 경험들을 하자..(준범)

여행 작가요.. 여행하는 것도 잘하고 글쓰는 것도 잘하니까.. 동시에 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준비행동은?) 음.. 일단 글을 쓰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
겠죠.. 그리고 여행에세이도 찾아보고.. 계획도 짜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
겠죠.. (소희)

역시 아무래도 일단.. 약간.. 불확정해도 목표.. 명확한게 없고 그때 그때
학교 다닐 때는 딱히 대학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없었
고.. 근데.. 이렇게 생활하고 보니까.. 대학이 가보고 싶더라구요..
솔직히 말하면 대학을 꼭 가야겠다는건 아닌데.. 의사가 되려면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이 가고 싶어요..(중혁)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원래 그 학교 자퇴할 때 복학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복학.. 잘못하면 복학하면 되겠구나 안심하고 한 것도 있었는
데.. 지금 와보니까.. 지금 다시 들어가는 것 보다.. 검정고시 해서 여러 가
지 하는게 편하겠다 생각했어요.. 검정고시로 고득점 받으면 그걸로 (대학)
가거나.. 한부모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노려야죠.. 대학은.. 여러 가지를 하
기 위한 수단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까지 나오면 할 수 있는 폭이 넓어
지잖아요. 대학에서 뭘 하는 것도 있고.. 그 대학 간다고 뭐가.. 일단.. 더
볼 수 있는게 많아지니까.. 할 수 있는게 많아지니까.. 수단인거 같아요...
(제민)

아직은 안정해졌지만.. 봉사하면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
주면서 그런 거를 많이 해보고 싶고.. 그림 같은 경우는 뭔가 나중에 전문적
으로 하게 되면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고 싶어요.. 재미도
재미지만.. 의미있게.. (지영)

나. 미래를 위한 바램

(1) 지원서비스

연구참여자들은 학교밖에서의 경험으로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다. 종혁이는 대학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지만 검정고시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부족하여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많아지기를 희망하였고, 동훈이는 학교를 그만두면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기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진로프로그램이 늘어나기를 원하였고, 제민이와 준범이는 학교밖 청소년이 집을 나오게 되면 청소년들이 머물 공간과 체험할 공간이 부족하여 갈 곳이 없다고 하였다. 소희는 지역마다 지원센터가 한정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은 먼 거리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가 부담된다고 하였다.

순수 검정고시만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거의 없고.. 거의 다 논술 전형으로 가는 거니까.. 역시 아무래도 검정고시는 믿을게 못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요즘 원하는 인재상은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사람을 뽑는 건데.. 저는 공부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깐.. 굳이.. 검정고시를 안 뽑을 이유는 없지 않은가.(종혁)

학교를 딱 나오면 누구랑 경쟁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진로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담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런데 안오면 상담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좀.. 진로적인 부분은 진짜 고민을 많이 하는거 같아요.. 학교를 나오면..(중략)너무 검정고시만 치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자격증 받을 만든다던가.. 물론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있는데.. 안하니까.. 문제이긴 한데.. 안하거나 겉에만 살짝

배우고 넘어가버리거든요.. (동훈)

좀 더 큰 환경.. 여기보다 더 큰.. 저기 서면에 놀이마루였나.. 있잖아요 그런 거처럼.. 궁리마루.. 부전동에.. 그 시설이 학교였는데 학교를 없애고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든 건데.. 그런데처럼 더 크게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여러 가지 지원도 더 많을 테니까.. 더 할게 많아지잖아요.. 지금도 많이 하는데.. 좀 한정되어 있는거 같아서.. 더 큰 공간이..(제민)

학교랑 비교 했을 때 없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학교 도서관도 없고, 뛰어 놀 운동장도 없고.. 뭐.. 그런게 없으니까.. 취미, 여가생활 이런 거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기회 같은 게 한정적으로 없죠.. 그런 것이 많이 없죠.. 운동장 같은 경우 만일 빌릴려고 해도 나중에 이제 동네어르신 분들이나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이 보여가지고 배드민턴도 치고.. 그래가지고 평일에는 평일, 주말 운동장을 빌리기에는 힘들어요..(준범)

교통비 지원.. 왜냐하면 학교 있는 애들은 가까운 쪽으로 학교를 가잖아요.. 집이랑 가까운 쪽으로..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다 지원센터가.. 지역구마다 하나씩 다 있는게 아니니까. 거리가 멀기도 하고.. 한 달에 드는 교통비가 2~3만원이 넘어가서 그게 좀 부담스럽죠.. (소희)

(2) 사회에 하고 싶은말

연구참여자들은 의지가 강하며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이지만, 아직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기에 학생이 아니라는 차별과 편견은 상처가 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학교 안과 밖이라는 이분법적인 견해, 문제아라는 인식이 아닌 청소년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한사람으로 봐주길 바라고 있다.

학교를 다니는.. 애들 중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고.. 선생님 말 잘 듣는 학생, 못 듣는 학생, 스포츠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착한 학생 나쁜 학생이 있는데.. 똑같이 학교밖에도 나쁜 학생들만 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나온 학생들만 있다라는 것 보다 그런 학생들도 있구나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은 아니니까..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그런 학생도 있고.. 학교에 찢린 애들도 있으며.. 다른 학생들도 많으니까.. 아니 다른 청소년도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준범)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이랑 학교를 안다니는 청소년들 구별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솔직히 어떻게 보면 같은 청소년이잖아요.. 애들은 학교 공부를 하고 학교를 안다니면 다른 쪽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걸 꼭 나눌 필요가 있을까.. (지영)

학교밖이라면 노는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노는 건..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학교에서 노는 거 밖에서 노는 것일 뿐인데.. 학교에서 자는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하고 노는 거고.. 그렇다고 그냥 공부하는 거면 학교에서 공부하는거랑 딱히 다른 것도 없고.. 그저 남들보다.. 학교 다니는 애들보다 시간이 좀 더 많으니까.. 시간이 많은 게 아니고..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좀 더 자유로우니까.. 그 표면적인 것만 보고 애는 놀기만 하는구나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거 같아요.. 그거는 학교 참관수업을 가보셔야지.. 그런.. (종혁)

학교밖 청소년들의 인식이 안 좋은 게.. 옛날에 뭐.. 사실.. 비행청소년 비슷한 거잖아요.. 비행청소년들이 사고를 치고.. 그렇게 하니까.. 전체 인식이 안좋아진거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러한 비행청소년이라는 소수로.. 다수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희)

그냥 옛날에는 진짜 학교 안다닌다 그러면.. 저도 그랬던 게.. 완전 문제아다 이러면서 아예 점찍고 보니까..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거 같았는데요..

(중략) 저희 눈치를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청소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애니까 이러는게 아니라 한사람의 인격체로 좀 저희를 대해 주셨으면.. 학교밖 청소년이나 일반 청소년들이나.. 너희는 어리니까 아니야가 아니라 너희도 한사람의 인격이니까 그걸 존중해줄게 라는 그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동훈)

연구참여자들은 학교밖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다양하지만 현재 주어진 기회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으며 빠른 사회진출을 위해 학교를 나와 있는 청소년일 뿐 문제아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바라보기보다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삶을 이해하고 그 삶의 경험에 관한 본질과 의미를 도출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학교밖 청소년 6명으로부터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Giorgi(1985)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학교밖 청소년의 경험은 크게 3개의 주제와 8개의 범주 그리고 22개의 구성의미로 도출되었다.

본 장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이 학업중단 전 삶과 학교밖 삶의 경험, 그리고 삶과 목표라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밖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전 삶은 가정에서는 부모의 강압적인 양육방식과 부모이혼으로 인한 상실감이 부모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났고, 또래친구의 괴롭힘, 선생님의 무관심으로 인해 학교생활에의 자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과 학교에서 수용받지 못하여 외로움과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겪는 부정적 경험의 영향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가족의 무관심, 억압적인 양육태도, 가족의 구조적 결손(강석영 외 2011; 박창남, 도종수, 2003; 배영태, 2003)이 학업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래관계의 어려움, 교사의 무관심, 낮은 학업성취 등이 위험요인(강석영 외, 2009; 서우석 외 2007; 조용태, 배영태, 2003)으로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자들이 적절한 부모의 관심과 따뜻한 돌봄을 받지 못하여 내면적으로 부정적인 자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학교생활에서도 교사의 무관심과 또래의 괴롭힘으로 인해 자신이 믿고 의지할 지지층이 없었다는(조아미, 안지숙, 2014) 것으로 가정과 학교안에서 수용과 공감, 이해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하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둘째,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밖 삶의 경험은 학업중단 이후 생활변화로 인한 무기력과 현실장벽에 직면하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밖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경험한 스트레스로 인해 학업중단 후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되는 해방감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부모의 권유로 공부방, 학원, 대안학교 등을 다녀보기도 하였지만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으로 움직일 뿐 게임이나 목적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학교밖 청소년은 구조적이고 통제된 학교생활과 달리 자유로운 학교밖 생활은 무기력해지고 불규칙한 생활로 바뀌면서 가족과의 갈등, 사회적 관계단절(오혜영 외, 2011)등 실질적 현실을 경험하였다. 이는 소속감 부재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 생활에 대한 불안,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 시선을 받기도 한다는(금명자 외 2004; 안현의 외, 2002) 보고와 일치한다. 그러나 학업중단 전 학교생활의 부정적인 경험은 현실장벽에의 직면으로 어려움으로 학업중단을 후회하기도 하고 학업복귀에 대한 양가감정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학업복귀에 대한 결정에는 방해가 되는 것으로(이주연, 정제연, 2015) 작용되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학교밖 경험과정 중 지원센터 선생님과 비슷한 경험의 또래 만남, 자발적으로 만든 동아리활동에서 부모에게 받지 못한 따뜻한 관심과 지지, 성취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심과 지지는 위축되었던 자아를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게 만들어주었고 또래와 협동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실감하는 삶의 전환점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이

소속감 추구의 강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실질적인 차별과 소외감에 휩싸였지만(김영희, 2015),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와 미래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김범구, 2013), 능동적인 활동의 성취경험이 많을수록 적응수준을 높이는(김영희, 2014) 것이다.

이렇게 학교밖 청소년이 학업중단 후 대부분 방황하는 시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이유는 자신이 도움 받을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거나(조아미, 이진숙, 2014), 홍보부족 때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업중단 예방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그만두는 시점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학교밖 생활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지만 지원센터 선생님의 공감과 지지, 그리고 또래친구의 자조 만남에서 받은 사회적 지지는 학교를 떠나 홀로 남게 되는 어려움과 정보적 지원 외에도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안현의 외, 2002) 것이다. 그리고 혼자 책임져야 하는 학교밖 생활의 어려움에서 동아리라는 집단 활동은 자기를 성장하게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동아리활동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학교밖 청소년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삶에 대한 의미와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어려움도 많았지만 부족함을 채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며 학교안과 밖이라는 방향만 다를 뿐이지 도전해나갈 수 있는 삶이라는 의미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미는 여전히 두려운 미래지만 지금-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며 다양한 경험에 도전하기를 원하였다. 이는 자신의 문제나 상태를 치유하고, 학업중단 이후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며 도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를(김영희, 2015) 지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한사람으로 연구참여자들이 바라는 지원서비스와 미래를 위한 바램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학업중단 이후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머물 공간과 대학진학의 차별대우, 교통비 지원, 진로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학교밖 청소년에게 진로상담과 진로탐색경험, 진로정보지원 등(김지수, 2013)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열악한 경제적 환경은 진로보다는 아르바이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비, 교통비 등 경제적 지원이(김영희, 2014)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실질적 필요에 따라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 이는 재학생과 같은 학령기에 속하며, 똑같은 발언권과 선택권에 대한 권리는 무시될 수 없으며, 사회 내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김영희, 2015)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학교밖 청소년을 문제아나 낙오자, 비행청소년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도전하는 청소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편견 없는 존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밖 청소년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문제적 관점이나 한정된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적응적인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밖 청소년의 이해를 위해 학업중단 전 배경과 학교밖 삶의 경험, 삶과 목표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학교밖 청소년은 삶의 전환이 되는 재경험을 통해 생활변화와 어려움, 삶의 전환점을 찾게 되는 경험과정을 탐색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교밖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환경의 부정적인 경험에서 긍정적인 경험으로 된 과정 중 자조집단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학교밖 청소년은 삶을 경험하는데 전 생애 과정을 주관적 경험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분석함에 의의가 있다. 이는 상담, 정책적 개입과 관련하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삶의 경험을 학업중단 전 삶의 배경과 학업중단 이후 학교밖 삶의 경험, 학교밖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삶과 목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교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전 삶은 가족구조 결손 및 기능약화와 학교에서의 또래친구의 따돌림, 선생님의 무관심, 학업흥미 상실 등으로 부정적인 자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학교생활을 어렵게 만들었고 자발적이거나 부모의 권유로 학교를 그만두거나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지 않기도 하였다. 이는 연구참여자가 비행이나 문제아로서 퇴학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또래친구, 주변 환경의 부정적인 관계형성이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게 된 결과이다. 이는 가족 간 유대관계를 높이고 주변 환경체계의 따뜻한 보살핌과 관심,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학교밖 청소년의 학교밖 삶의 경험은 학교를 그만두고 난 이후 느

끼는 해방감으로 무계획적인 자유로운 생활을 하거나 대안학교로 진학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자신의 취지와 맞지 않은 생활은 게임에 몰입하기도 하고, 무기력한 생활이 지속되면서 불안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였으며 부모와의 갈등 및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학교밖 생활 현실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의 변화된 삶의 경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교밖 청소년이 겪는 삶의 경험에 대한 어려움이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하기도 하였지만, 학교안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은 학교안으로 돌아가기보다 학교밖에서 마무리하기를 원하게 하였다.

하지만 지원센터를 통해 만난 비슷한 경험이 있는 또래친구와 동아리 활동은 학교밖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였다. 이는 학교 재학 중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통제되어진 삶에서 학교밖은 스스로 계획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동아리 활동은 각자 주어진 역할에 책임감과 서로에게 자극이 되면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므로 학교밖에서 이루어진 자조만남과 자발적으로 만든 동아리 활동은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학교를 그만두고 난 이후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밖 청소년은 무기력하고 수동적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비행청소년이라는 편견과 달리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원하며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느끼고 싶어 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지금까지의 삶의 성찰을 통해 기회를 찾아 도전하는 삶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으며 미래에 대한 목표도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학교가 아닌 학교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의 적응을 돕기 위해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관의 홍보와 개인 특성에 맞는 진로 상담, 효과적인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들이 머물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학교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한 기관 소속 학교밖 청소년과의 만남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모든 학교밖 청소년을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을 지닌다. 다른 기관이나 소속되지 않은 연구참여자를 만나 자료를 수집하고 싶었으나 유관기관 및 주변 네트워크를 통해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학교밖 청소년이 열악한 환경과 비관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 외부 노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안고 있다는 이유로 소개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는 학교밖 청소년을 긍정적으로 시선으로 바라보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나설 수 있게 적극 추천해준 기관 담당자의 도움으로 연구자와 심층면담을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 기관에서 학교밖 청소년을 만났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관 소속이나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둘째, 학교밖 청소년의 삶의 경험을 현재시점까지 심층면담을 하였으나 추후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학교밖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면담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연구참여자는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고 하였고, 짧은 기간이지만 2회의 인터뷰를 하는 동안 더 당당해진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 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이 되었을 때 지금의 경험

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것이다.

셋째, 학교밖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 및 주변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추가로 진행하여 주변 구성원의 경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잠재적 학업중단 의도를 가졌지만, 부모가 먼저 자퇴를 권유한 경우도 있었기에 가족 내 학교밖 청소년을 둔 가족의 경험이 어떠한지 탐색 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밖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준 동아리 활동 경험은 어떠한지 후속 연구에 이루어지길 바란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리 활동에 대해 깊이 다루지 못하였다. 학교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동아리 활동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탐색해 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강석영, 양은주, 이자영(2009).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개입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연구**, 148, 1-280.
- 고옥란(2012). **대안학교 학생들의 또래관계기술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용노동부(2015). **2016년 국고보조사업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자료**.
- 교육부(2014). 2014년 학업중단 예방 340억 집중 지원(보도자료). 2014년 2월 27일 보도자료.
- _____(2016a). **‘2015학년도 초, 중, 고 학업중단 현황 발표’**. 2016년 9월 29일 보도자료.
- _____(2016b). **대안교육기관 현황(보도자료)**.
- 구본용, 금명자, 김동일, 김동민, 남상인, 안현의, 주영아, 한동우(2005). 『**위기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 연구**』. 청소년위원회.
- 구본용, 신현숙, 유제민(2002).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중퇴모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0(2), 35-57.
- 국가법령지원센터(2015).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00호, 2014. 5. 28., 제정)**. 국가법령지원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4300#0000> - 검색일 2016.09.23.일자.
- 권지은(1998). **청소년 비행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금명자(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의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14(1), 299-317.
- 금명자, 권혜수, 이자영, 이수림, 김상수(2004). **학교밖청소년 종합지원체제 구**

- 축 운영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가희(2013). 초기 청소년 부모애착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 분노에 관한 중단연구: 잠재 성장모형 적용. **청소년복지연구**, 15(2), 295-317.
- 김경애(2014).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방안 연구 생애진로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김근영(2012).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 및 조력에 관한 질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남선, 이옥분, 정일환, 주동범, 한상철(2001). **청소년 교육론**. 서울: 형설출판사.
- 김동민, 금명자, 권해수, 이소영, 이희우, 이광호(2003).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민(2001). 자발적 학업중도탈락 현상 발생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1-143.
- 김범구(2012).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315-337.
- _____(2013).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미향, 김영희, 유인영, 이희영(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 고찰 -Giorgi, Colaizzi, Van Kaam 방법을 중심으로-. **보건연구정보센터**, 1208-1220.
- 김성기(2013).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보호 방안**”. ‘**학교밖 청소년 문제 대책 마련 토론회**’. 학교폭력예방연구소.
- 김영천(2013a).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 제2판.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_____(2013b).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제2판.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김영희, 최보영, 이인희(2013). 학교밖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욕구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4), 1-29.

- 김영희(2014).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과정**.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2015). 검정고시를 선택한 일반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경험 -학교 밖에서 진로를 결정하고 고군분투하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연구**, 17(2), 131-157.
- 김윤옥, 박성미, 박소영, 손미, 신경숙, 이은화, 정명화, 허승희, 황희숙(2009). **질적 연구 실천 방법**. 파주: 교육과학사.
- 김지수(2013). **학교밖 청소년의 진로탐색경험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2011). **학교밖 청소년의 노동진입의 맥락과 경험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2008).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질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2002). 학교중도탈락의 사회적 맥락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213-242.
- 꿈드림. http://www.kdream.or.kr/sub01_1_1.asp?menuCategory=1.
- 남미애(2006). 학교밖 청소년의 욕구와 사회적 지원방안. **사회과학논문집**, 24(2), 147-196.
- 남상인(2000). **학교중퇴, 청소년문제행동의 이해**. 서울시 자녀안심운동서울협의회.
- 박창남, 도종수(2003). 청소년 학교중퇴의도의 원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207-238.
- 박현선(2003). 청소년의 학업중퇴 적응과정에 대한 현실 기반이론적 접근. **한국사회복지학**, 53, 75-104.
- 박현선(2004). 학업중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청소년상담연구**, 12(2), 69-82.
- 배영태(2003). 학교 중도탈락의 선행 요인과 판별. **청소년상담연구**, 11(2),

23-35.

백혜정, 송미경, 신정민(2015). **학교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법무부(2015). 내부자료.

서우석, 정철영, 이광호, 채영병, 허영준, 김재호(2007).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중도탈락 개선을 위한 진로지도 및 상담 활성화 방안. **직업교육연구**, 26(1), 106-133.

성운숙(2005).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중퇴과정과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6(2), 295-353.

송광성, 구정화, 이명아, 김소희(1992). 정학·퇴학 청소년 선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신현숙, 구본용(2002). 중퇴생, 중퇴 고위험 및 저위험 재학생의 비교: 개인 및 사회·환경 변인들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심리학회**, 16(3), 121-145.

안영신(2001). **청소년의 학교중퇴유형에 관한 비교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현의, 이소영, 권해수(2002). **학교 중도탈락 청소년의 욕구와 심리적 경험 조사,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여성가족부(2015a). **학교밖 청소년 지원 위해 경찰청교육청과 협력 강화**
http://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3_01.jsp?func=view&idx=696624. 2015년 06월25일자.

_____(2015b). **2015년도 청소년사업안내(II)**.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2011).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9(2), 125-154.

유성경(2000). 청소년 탈비행과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교육학연구, 38(3), 81-106.
- 유성경, 이소래(1998). **잠재적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개입체제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유지선(2007). **청소년의 미래지향이 심리사회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진이(2009).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심리적 지도방안**. 청소년학연구, 16(11), 229-257.
- 윤여각, 박창남, 전병유, 진미석(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 조사**.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 윤채봉(2000). **경제처분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적응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철경(2010). **학업중단 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엄아람, 최은희(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서.
- 이경상, 박창남(2006). **학업중단 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참여실태 및 지원방안: 기관소속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 17(2), 265-289.
- 이경상, 조혜영(2005).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및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8(2), 41-64.
- 이남인(2015). **현상학과 질적 연구**. 서울: 한길사.
- 이명숙, 이규민(2009).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업성취, 자아개념, 학교적응 및 학교 부적응행동 간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0(1), 121-136.
- 이미원, 유현실(2013). **학교중단 청소년의 ‘나의 삶 찾기’ 과정: 천안시 거주 청소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1(1), 341-370.
- 이병환(2002).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응 방안**. 한국교육, 29(1), 175-196.

- 이숙영, 남상인, 이재규(1997). 중도탈락 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청소년상담연구**, 40, 1-223.
- 이은자(2015). **청소년 학업중단 경험 연구**. 백석대학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주연, 정제영(2015). 학업중단 결정에 대한 학교밖 청소년의 인식 연구. **청소년학연구**, 22(11), 239-267.
- 이혜영(2001). 학업중도탈락의 실태와 학교에서의 대처방안. 학업중도탈락과 청소년 복지.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7-23.
- 장경희(2010). 가족건강성과 공격성간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또래 관계기술의 조절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경숙(2006). 10대 학업중단 청소년의 근로 실태에 관한 실증적 고찰연구: 가출 경험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4(1), 3-21.
- 조규필, 박현진, 김래선, 김범구, 양대회, 이현진, 황수진(2011).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 재적응 과정 연구. **중등교육연구**, 59(4), 909-1000.
- 조아미(2002). 청소년의 학교중퇴 의도 결정요인. **청소년학연구**, 9(2), 1-22.
- _____(2014). ‘학교밖 청소년 지원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 전문가 토론회: 학교밖 청소년 실태 및 문제점.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조영승, 구본용, 신현숙, 유순덕 (2001). 경기도지역 중퇴생 선도·보호방안 프로그램 개발연구. 경기도: 경기도청.
- 조용태, 배영태(2003). 학교 중도탈락의 요인에 관한 고찰. **교육학논총**, 24(1), 173-192.
- 조한혜정(1997).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조희경(2014). **컴터에서 생활 중인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애 경험에 대한**

- 사례연구.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연수(2015). **학교밖 청소년의 도시형 대안학교 적응과정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춘례(2013). **부모 이혼에 의한 한부모 남자고등학생의 학업갈등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나미, 신문희, 박은혜, 박지현(2013).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복귀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접근. *청소년복지연구*, 15(1), 121-153.
- 홍소정(2005). **청소년기 친구관계와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onner T. & Barret, L. F (2005). Implicit self-attitudes predict spontaneous affect in daily life. *Emotions*, 5(4), 476-488.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2015). **질적 연구방법론-다섯가지접근**. 서울: 학지사.
- Giorgi, A.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 Elder JR, G. H., & Shanahan, M. J. (2006). *The Life Course and Human development*. In R. Lerner (6th Ed.),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Handbook of Child Psychology(pp.665-715). NY: John Wiley & Sons.
- Franklin, C. (1992). Family and individual patterns in a group of middle-Class dropout youths. *Social Work*, 37(4), 338-343.
- Hartup, W. W. (1993). *Peer relation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 p103-196. New York; John Wily & Sons.
- Husserl, E. (1970). *The crisis of European sciences and ranscendental*

- phenomenology*: An introduction to Phenomenological philosophy.
North western University Press.
- Kaplan, R., (1984). Impact of urban nature: a theoretical analysis. *Urban Ecol.*, 8: 189-197.
- Kernis, M. H., Grannemann, B. D., & Barclay, L. C. (1989).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as predictors of anger arousal and host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1013-1022.
- Levine, H. M. (1986). *Educational reform for disadvantaged students: An emerging crisis*. West Heaven, CT: National Educational Association.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New Jersey: Prentice-Hall. 310-317.
- Seidman, I. (2006).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Third Edition*. 박혜준, 이승연 역(2009).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서울: 학지사.
- Zeeman, R. D. (1982). Creating change in academic self-concept and school behavior in alienated secondary school students. *School Psychology Review*, 11(4), 459-461.

<부록 1> 연구참여 동의서

연구 참여 동의서

학교밖 청소년의 삶에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연구자 : 남갑길(부경대학교대학원 교육컨설팅협동과정 석사수료)

연락처 : 010-****-****

e-mail : kabkil@****.***

이 연구는 학교밖 청소년의 삶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로 학교밖 청소년의 삶의 경험에 대한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 즉, 학업중단 전 성장과정과 학교를 그만 둔 이후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 이러한 경험에 어떠한 의미를 두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연구자는 개인인터뷰를 통해 연구참여자와 2-3회 면담을 진행하고자 하며, 면담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예상합니다. 면담은 반구조화 된 개방형 질문을 하며 연구참여자의 이야기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면담 내용은 녹음기로 녹음 및 녹취기록 될 것이며, 녹음된 내용은 연구를 제외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녹음된 내용은 가명으로 사용 할 것이며, 연구 이후에는 모두 폐기 될 것입니다. 면담 중 불편한 질문이 있으면 대답을 거절 할 수 있으며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참여자 : _____ (인) 연구자 : _____(인)

<부록 2> 면담 지침 안내서

첫째, 학교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게 전 성장배경

- 1) 학교를 그만두기 이전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 1-1. 가정환경, 부모, 형제 관계는 어떠합니까?
 - 1-2. 나, 가정, 학교, 또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1-2. 가장 좋았던 기억이나 경험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1-3.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이나 경험은 무엇입니까?
- 2) 학교를 그만 두게 된 전후 과정의 질문입니다.
 - 2-1. 학교를 그만 둔 시기는 언제입니까?
 - 2-2. 학교를 그만두게 된 과정과 계기에 대하여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 2-3. 학교를 그만두고 난 이후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 2-3. 학교를 그만두고 난 후 심정이 어떠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둘째, 학교를 그만 둔 이후 경험하는 삶

- 1) 학교를 그만 둔 후 가족반응이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세요.
- 2) 학교를 그만 둔 후 주변사람과의 관계나 반응에 대하여 이야기 해 주세요.
- 3) 학교를 그만 둔 후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 4) 학교를 그만두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 5) 학교를 그만 둔 후 어려움이나 필요했던 도움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셋째, 학교밖 청소년들의 경험과 의미

- 1) 학교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2)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느낌이나 감정은 어떠한지 이야기 해주세요.
- 3)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는 없었습니까?
- 4)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삶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 5) 학교를 그만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 해주세요.
- 6) 학교밖 청소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7) 어른들이나 사회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 8)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칭찬?

넷째, 기대하는 미래

1) 미래의 삶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1-1. 미래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1-2. 도움을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섯째, 자신의 경험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친구나 후배에게 조언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며 해 주시겠습니까?

여섯째, 인터뷰를 마치고 난 소감이나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해 주시겠습니까?



<부록 3> 학교밖 청소년의 삶에 대한 구조적 진술

범주	구성 의미	의미단위 요약
부모에 대한 불신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함	부모님 이혼 이후 중학교 때부터 혼자 생활하 게 됨
		엄마는 일로 누나는 바쁘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아 외로움
		부모님 맞벌이로 인해 친척집이나 할머니 손에 서 자라게 됨
		잡은 만남의 부재에서 자주 귀가하지만 친밀성 이 없음
		아버지 퇴사로 어려워진 형편과 동생의 출생으 로 관심에서 벗어남
		자는 모습외에는 보기 힘든 아버지
		저녁이나 쉬는 날만 마주할 수 있는 엄마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상실감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랑 살게 됨
		이혼을 말해보지만 아버지 결정을 되돌릴 수 없었습
		갑작스런 이혼 소식에 충격을 받음
		가끔 연락 가능한 아버지 찾지 않으면 볼수 없 는 어머니
	양육방식에서 오는 적대감	무능력해 보이는 아버지의 음주와 폭언
		술만 마시면 어머니는 집을 나가고, 폭언 폭력 을 집에 남은 자신은 그대로 당함
		화와 짜증을 내시는 아버지를 피하게 됨
		몰아붙이는 아버지는 두려움 대상으로 여겨짐
		공무원이나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만 강요함
		진로 결정을 몰아 붙이는 부모를 피하게 됨
		친밀감 부족으로 인해 일방적인 의사 전달로 멀리하게 됨
학교생활 의 자괴감	또래친구의 괴롭힘	3학년 올라가면서 이유 없이 따돌림을 당함
		따돌림의 두려움에 친한친구에게서 외면당함
		동생도 따돌림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됨
		5학년 올라가면서 쟁과의 갈등으로 또래로부터

외로움과 소외감		겉돌리게 됨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해 힘들었던 기억
		건강상 잦은 결석으로 질타하는 친구로 힘든 학교생활을 함
		전학이후 되풀이 되는 경험으로 자퇴를 결정함
	선생님의 무관심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는 답변만 받음
		성적하락도 아랑곳 하지 않는 선생님의 무관심
	학업 흥미 상실	6학년 올라가면서 영어성적 저하로 스트레스를 받음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학업에 흥미와 성적이 떨어짐
		고등학교 중간권에 공부에 대한 흥미 상실로 성적이 바닥을 치게 됨
		성적이 대학진학을 접게 하면서 1년 쉬는걸 선택함
	수용보다 외면됨	자신의 말을 들어줄거 같지 않아 속마음을 부모나 친구한테도 털어놓지 않음
		친구한테 따돌리는 이유를 물었지만 무시당함
		처음에는 엄마는 몸이 아프다는걸 이해 받았지만 이후로는 그냥 안가는 것처럼 여겨 외면됨
		전학 이후에도 잦은 결석으로 친구들의 밥먹으로 왔냐는 비난을 받음
		아버지의 술주정으로 집을 나가있는 엄마와 계속 싸우게 되고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함
		일로 바쁘거나 누나도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 들어오지 않아 혼자 집에 거주함
		자신보다 공부잘하는 동생은 부모님의 자랑거리였지만 자신은 인정을 못받는 느낌
생활의 변화와 어려움	무의미한 생활로 이어짐	학교를 벗어난 후련함으로 자유로움을 느낌
		하는 일 없이 놀기와 공부방과 목적없는 생활이 이어짐
		무조건 놀고 싶다는 생각에 계획없이 놀기만 함

	게임, 인터넷에 몰입	집에서 먹고 자는 일 외에 게임에 몰두함
		자퇴전에 하던 게임을 계속 하게 되면서 밤 낮 없이 게임을 함
		바로 잡아 주는 사람없어 게임만 함
		집에 있으면 의지할 곳이 핸드폰밖에 없어 검색만 하고 지냄
	기대와 다른 대안학교	특정 교과목만 배우며 자신의 진로와 맞지 않았으며 안좋은 변화를 경험함
		자신의 진로 방향이 맞지 않음을 느낌
		도움이 되는 교육보단 되풀이 되는 교육만 하고 있음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불편한 시선을 마주할때면 개교기념일이라 선다고 하고 넘어감
		영화보기 위해 학생용으로 표를 사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봄
		버스 기사님이 뭐라하시거나 괜히 쳐다보는 듯한 자격지심
		버스를 탈 때 어른들이 이상하게 바라봄
		명절에 친척들 만날 때 측은하게 보는 시선
		오전에 외부로 나가면 켜려보는 시선들
현실장벽의 직면과 어려움	무기력한 생활의 지각	처음 계획과 달리 추천으로 학원도 다녔지만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나태해짐
		부모님 권유로 학원생활을 하였으나 학교와 같은 생활의 지속이라고 느껴짐
		실컷 놀고 나서 뭘해 할지 몰라 밤낮 없는 생활로 바뀌게 됨
		막연함에 외부와 단절하게 됨 / 혼자 낙오된 느낌
		홈스쿨을 하면서 하루종일 공부에만 매달리다 보니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막막함 느낌
		계획없이 놀다 시간이 지나면 혼자 남는 외로움으로 소속감의 필요성을 느낌
	부모와의 갈등	진로 선택을 독촉하는 부모님과 갈등으로 싸움

삶의 전환점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게 됨
		노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모님의 역성에 도피 하고 싶은 마음만 듦
		또래와의 공감형성의 어려움으로 집에서 나오 지 않게 됨
	경제적인 어려움	친구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암담함에 힘겨움 친구와 연락을 피하면서 소심해지고 위축되어 버림
		미성년자이면 빨리 그만 둘거라는 인식에 일차 리 구하기가 어려움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너무 힘들
	관심과 지지를 받음	부모보단 (동업)사장님이 든든한 지원군으로 감 사함
		센터선생님이 부모보다 이해와 공감을 잘해줘 서 좋음
		힘들 때 푸념을 들어주는 친구가 든든했음
		동아리 가입을 권유해주는 선생님을 통해 용기 를 얻음
		활동도 좋지만 주변의 칭찬이 힘이 되고 즐거 움
	경험을 통한 성취감	친구가 생기고 격식자리의 사회와 조례를 만들 어 보는 경험
		점수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닌 자유로운 글쓰기 를 통한 즐거움
		토크 콘서트 진행중 무대에 올라 처음으로 마 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함(뿌듯함/자존감 업)
		점수를 얻기 위한 글쓰기가 아닌 엉망이지만 나의 이야기를 자유로이 쓰고 난 후 뿌듯함
		학교가 세상의 다인줄 알고있었는데 대학을 가 지 않아도 되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할 수 있 음
	변화와 성장을 실감함	활동보다는 동아리가 이루어져 역할이 생기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즐거움
		쉽지않은 활동이지만 성장을 경험하게 됨
		식당에서 물 요청도 어려웠던 소심함이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됨
		사업을 하면서 길가는 사람이 물어보면 당당하게 자신을 밝힘
		학교에서는 그냥 만날 수 있는 친구가 밖에서는 나서지 않으면 만들 수 없음을 알게됨
		소심했던 성격이 사람들과 소통하고 활동하게 되면서 주도적으로 나서게 됨
		직업군인을 추천하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소신을 말할 수 있게 되었음(신념/의지가 강해짐)
의미와 기대	도전하는 삶	새로운 시작과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또다른 도전을 맞는 느낌
		남들보다 조금 힘든 길일 수 있으나 도전 해 나가는 길
		학교를 나올땐(성적저하 무기력) 하나의 목표(대안학교, 대학)가 있었지만 특별하다기 보다 다른 길 (틀린길이 아닌)
		어긋난다고 생각했으나 방법의 차이로 학교밖과 안은 의미가 없음 빠른 사회진출이 가능
		방향이 다를 뿐이지 특별한 거 없이 비슷함
	목표와 꿈	집에만 있는 은둔형 생활에서 모임을 하면서 사고력이 달라지고 좀 더 자신을 알아가려함
		검정고시 통과하고 나서 빠른 대학진학을 원했으나 대학보다는 경험을 원함
		학교 다닐 땐 아무런 꿈이 없었으나 의사가 되기 위해 대학이 가고 싶어졌음
		정해진 진로 없지만 그림을 그리고 싶고 그림을 통해 의미를 주고 싶음
		검정고시 준비하며 아르바이트와 꿈을 찾기 위해 경험을 하고 싶음
		여행과 글을 쓸 수 있는 여행작가 되고 싶음
		여행과 글을 쓸 수 있는 여행작가 되고 싶음
바라는 점	지원서비스	지역마다 지원센터가 부족하여 찾아가는데 교통비 지원을 받고 싶음
		논술전형의 폭은 넓으나 검정고시만으로 대학을 가기는 어려움
		학교밖 청소년이 즐길 운동장 같은 공간이 필요

		요함
		좀더 큰 공간과 많은 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수련관을 알지 못하면 청소년들이 머물 공간이 없음
		은둔형 청소년을 위한 홍보 지원서비스기 필요함
		검정고시나 한정된 지원만 치중되어있음
		청소년 층의 벽 없애기 / 학교 안이나 밖이나 편견이 없으면 좋겠음
	사회에 하고 싶은 말	학교밖 청소년은 다른 쪽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음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 안 청소년 공부하는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함
		비행 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아닌 다수로 인정이 필요함
		학교 안과 밖을 구별없이 바라봐 주길 원함